

3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579.48 (+16.76)		790.21 (-13.77)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888 (-0.042)		1357.95 (-10.75)



한성숙 국무총리·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경경제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09개 공공기관 감축... 법무부·성평등부 이전

행정·공공기관 개혁방안
발전 5사, 25년만에 '단일법인'
LH, 개발·주거복지 조직 분리
수도권 공공기관 '잔류 최소화'
4분기 계획 확정, 내년부터 이전

정부가 국가복합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고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시행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내년 세종시로 이전하고, 발전 5사는 25년 만에 단일 법인으로 재통합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전담 조직으로 분리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 및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방안은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다. 핵심축은 전략적 구조개혁(15개 감축),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감축),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 통합(83개 감축)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다. 2001년 전력부문 경쟁 도입을 위해 분할됐던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발전 5사는 25년 만에 (가칭) '한국발전'으로 합친다. 분산돼 있던 연간 500억원 규모의 R&D와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하나로 묶어 대규모 에너지 전환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돼 석유·가스 수급과 자원 탐사를 일원화한다. 알뜰주유소 등 유통 업무는 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되며,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법 개정을 거쳐 청산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 단일 법인

하의 권역별 지사 체제로 전환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도 하나로 합쳐져 고속철도 운영 체계가 일원화된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LH는 개발과 복지의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전담하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쪼개진다. 개발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환류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유사·중복 및 소규모 기관 개편도 병행된다.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원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통합된다. 캠프FMC 등 금융 공공기관 시설관리 자회사 5곳은 '정책금융FMC'로 수평 통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소재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올 4분기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내년부터 민간건물 입차 등을 통해 선도이전을 즉시 추진하며, 법무부·성평등부 등 중앙행정기관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을 본격화한다.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정부는 임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완벽히 보장하고, 보수 체계 및 복리후생 인센티브를 마련해 처우 저하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성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핵심 역량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민첩하고 경쟁력 있는 공공 부문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전국 평균나이 46.2세 15년 새 7.7살 먹었다

이제 거주민 평균나이가 30대인 지역은 전국에 사실상 없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0대였던 세종도 끝내 지난달 말일부로 40대를 찍었다. 전국적으로 국민 평균나이는 15년 만에 여덟 살 가까이 많아졌다. 40대 후반이 코앞이고 이르면 2030년대 초 50세를 넘어설 전망이다.

3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세종 거주민(39만 명) 평균연령은 40.0세로 집계됐다. 세종은 그 전달인 7월까지 전국 16개 주요 시·도 가운데 유일무이한 '30대 지역'이었다. 마흔 미만 지역은 이제 없고 앞으로도 없을 확률이 커졌다.

8월 전국 평균연령은 46.2세였다. 15년 전인 2011년 8월(38.5세)과 비교해 7.7세 늘었다. 연평균 0.51살씩 더 많아진 셈이다. 경북이 49.7세로 거주민 나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49.1세, 전북 49.0세, 부산 48.1세, 경남 47.7세, 전남광주 47.7세 순으로 많았다.

행정안전부, 8월 기준 통계
세종 거주민 평균 연령 40.0세
16개 시·도 '30대 지역' 사라져
경북도 49.7세, 나이 가장 많아

지역별로,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전남이 49.9세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광주와의 통합에 따라 7월(47.6세)부터 순위가 내려앉았고 경남과 함께 5~6위에 자리하게 됐다.

서울은 8월 기준 전국평균을 밑도는 45.6세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젊은 지역 순위는 세종에 이어 경기(44.5세), 대전(44.8세), 인천(45.2세), 울산(45.4세) 순이었다.

남녀 성별로는 아직 30대가 남아 있다. 세종 남성 거주민이 39.4세였다. 세종 여성이 40.5세로 세종 평균 '마흔' 진입을 이끌었다.

여성 중 경북(51.5세)과 강원(50.6세), 전북(50.5세) 거주민은 이미 쉰 살을 넘어섰다. 6월까지인 전남 여성이 51.5세로 당시의 경북 여성(51.4세)보다 많았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최고령 위치를 경북에 넘겼다.

전국 거주민은 이제 평균 쉰 살을 넘보고 있다. 연평균 0.51세 증가를 산술적으로 대입하면 이르면 7년 내, 늦어도 8년 안에 50세에 도달한다. 예상 시점은 2033~2034년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2031~2032년쯤이 될 가능성도 높다.

행안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70대 인구(471만 명)가 10대 인구(461만 명)보다 10만 명 더 많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metro

서버용 D램 물량 부족... 삼성·SK, 생산능력 키운다

HBM 생산확대에 공급여력 하락
3분기 D램 가격 18% 상승 전망

인공지능(AI) 서버용 D램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로 일반 D램 공급 여력이 줄어들고 서버용 수요도 중·저용량 제품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능력 확대와 선단 공정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는 올해 3분기 서버 D램 고정 거래가격이 전분기 대비 13~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공급사와 서버 OEM 업체들은 지난 8월 협상 과정에서 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분기 대비 15~20% 인상된 가격 수준에서 거래를 확정했다. 9월 거래가격도 전월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버 D램 수요는 중·저용량 제품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들은 기존 96~128GB

제품 중심에서 32~64GB로 수요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메모리 비용 부담을 낮추고 완제품 서버 출하량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수요가 이동하면서 32~64GB 제품의 공급도 빠듯해지고 있다. D램익스체인지는

공급사들이 공급 부족이 두드러지는 32GB 모듈 가격을 높여 평균판매가격(ASP)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128GB와 64GB 모듈의 용량당 가격 격차도 올해 2분기 22%에서 최근 15%로 축소됐다.

HBM 생산 확대도 일반 D램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HBM 생산을 늘리면서 일반 D램에 배정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D램익스체인지는 HBM 물량 확대에 따른 일반 D램 생산능력 잠식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 서버 D램 공급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김민석 “용혜인 논란, 깊이 생각... 국민 판단 존중해”
/사진 뉴시스
▲안철수 “李, 용혜인 겹치 알고도 지명했나... 철 회해야”

▲오세훈 “처음으로 불꽃축제 이틀 진행...안전 철저 관리”
▲금융노조 4일 총파업...“지방이전은 국가 경쟁력 훼손”

▲20k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에 제어장비 구축 의무화
▲전기차 충전 요금, 주말·공휴일 낮엔 반값...5일 시작

K-반도체, HBM 시장 점유율 83%… 삼성전자 12%p ‘깁충’

韓 기업 합산 점유율 전분기비 4% ↑
SK하이닉스, 매출 기준 점유율 50%
삼성전자, HBM4 출하… 상승세 기대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글로벌 고대역 폭메모리(HBM) 시장 점유율을 전 분기 대비 12%포인트(p) 끌어올리며 1위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17%p까지 좁혔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분기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매출 기준 점유율 50%로 1위를 지켰다. 다만 전 분기(58%)보다 8%p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21%에서 33%로 상승했고, 마이크론은 21%에서 18%로 하락했다.

양사 격차는 1분기 37%p에서 2분기 17%p로 축소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SK하이닉스가 64%에서 14%p 하락한 반면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삼성전자는 15%에서 18%p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 69%였던 SK하이닉스 점유율은 5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50%까지 내려왔다. 한국 기업 합산 점유율은 83%로 전 분기(79%)보다 확대됐다. 세 분기 연속 21%를 유지했던 마이크

론은 이번 분기 18%로 밀렸다. 삼성전자의 점유율 상승분이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마이크론 뒤편에서도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전자가 HBM4 출하를 본격화하면서 점유율이 점진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HBM 매출 대부분은 5세대 HBM3E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6세대 HBM4 출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시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4를 가장 먼저 공급한 업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지난해 9월 제시했던 ‘2026년 삼성전자 HBM 점유율 30% 상회’ 전망은 2분기에 현실화됐다.

2분기 점유율 변동 배경으로는 HBM 가격 하락이 꼽힌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지난달 4일 발표한 2분기 D램 시장 분석에 따르면 범용 D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급등한 반면 HBM 가격은 HBM3E 단가 하락과 HBM4 출시 지연으로 전년보다 떨어졌다. 같은 분석에서 2분기 전체 D램 점유율은 삼성전자 39%, SK하이닉스 26%, 마이크론 25%로 집계됐다.

황진성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디렉터는 당시 “SK하이닉스는 경쟁사보다 HBM 출하량과 매출 비중이 높아 HBM 평균 가격 하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고 분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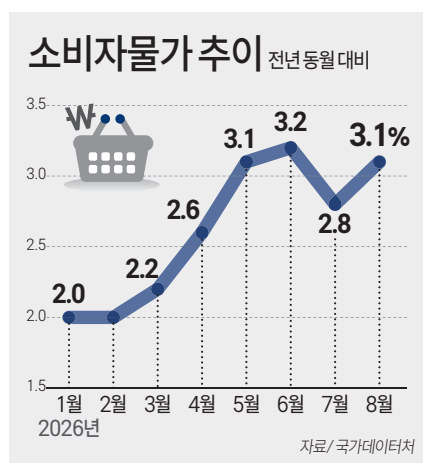
개인 서비스 등 물가압력 여전… 한은 ‘통화정책 판단’ 시험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 이상
통신요금 할인 기저효과 등 영향
근원물가 중심 기조적 상승 전망
10월 추가 금리 인상론 무게 실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두 가지 특수요인이 숨어 있다.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물가를 0.58%포인트(p) 끌어올린 반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상승률을 약 0.5%p 낮췄다.

두 효과의 크기는 비슷했지만 산출 전제와 성격은 다르다. 통신비 효과만 제거하면 물가는 2%대 중반으로 내려가지만 개인서비스 등 기조적인 물가 압력은 여전히 강하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시점도 표면적인 3.1%보다 일회성 요인이 사라진 뒤 남는 물가의 ‘근적합’에 좌우될 전망이다.

◆ 통신비는 높이고 유가상한은 낮추고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상승률은 6월 3.2%에서 7월 2.8%로



내려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7월 2.6%에서 8월 3.4%로 0.8%p 뛰었다. 2023년 5월 3.8%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가를 끌어올린 주된 요인은 휴대전화료였다. 지난해 8월 일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요금을 한 달간 50% 감면하면서 낮아진 가격이 올해 비교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에 휴대전화료는 1년 전보다 26.7% 뛰었고 공공서비스 물가는 6.5%,

통신 부문은 16.6% 상승했다. 통신 부문의 전체 물가 상승 기여도는 0.63%포인트에 달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통신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약 0.58%p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효과를 제거할 경우 8월 물가 상승률은 약 2.5%로 낮아진다. 근원물가 역시 식료품과 에너지는 제외하지만 통신요금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포함하기 때문에 이번 기저효과 영향이 받았다.

반대편에서는 정부의 가격 안정 조치가 물가를 눌렀다. 석유류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 중에도 14.2% 올라 전체 물가를 0.54%p 끌어올렸다.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8월 물가 상승률이 실제보다 약 0.5%p 높은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농축수산물도 출하량 증가와 정부 할인 지원 등의 영향으로 2.6% 하락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21%p 낮췄다.

통신비와 최고가격제 효과는 서로 다른 가정에 따른 추정치여서 기계적으로

합산해 별도의 ‘실제 물가’를 만들진 않는다. 다만 하나의 물가지표 안에 상승률을 높여 보이게 한 통계적 기저효과와 낮춰 보이게 한 정책 효과가 동시에 담겼다.

◆ 복잡한 추가 금리 인상 여부·시점

특수 요인을 건어낸 뒤에도 물가가 안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체 서비스 물가는 3.7% 올라 물가 상승률에 2.04%p 기여했다. 개인서비스는 3.5%,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4.0% 상승했다. 내구재 가격도 4.1% 올라 비용 상승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는 흐름을 보였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7%, 내년을 2.3%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근원물가는 누적된 비용 충격의 전이와 성장세 확대에 따른 수요 압력으로 올해와 내년 모두 2.5%의 높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대인플레이션이 새롭게 뛰지는 않았다. 8월 소비자물가의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 3년과 5년 후는 각각 2.6%로 모두 전월과 같았다. 현재 기준금리 3.00%에서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단순 차감한 사전적 실질금리는 0.3%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은 추가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요인이지만 목표물 웃도는 근원물가와 서비스 가격은 반대 방향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9월 물가가 다음 통화정책 판단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9월에는 통신비 기저효과가 사라져 전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도 개인서비스와 내구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면 10월 추가 인상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기조적인 물가까지 둔화할 경우 한은이 환율과 가계대출, 주택가격 흐름을 더 확인할 여지가 생긴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 소멸로 8월보다 낮아지겠으나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계심을 가지고 물가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etro

/김주형 기자 gh41@

네이버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특화 ‘정부 AI 모델’ 만든다

과기부 개발사업 수행기관 선정
국내 독자보안 AI 기술 확보 목표

네이버클라우드가 SK텔레콤과의 경쟁 끝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을 따냈다. 네이버의 AI 기술과 LG의 AI 역량, 국내 보안기업의 데이터·기술을 결합해 사이버 위협 분석과 취약점 탐지 등에 활용할 독자 보안 AI 모델을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SK텔레콤이 각각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최종 경쟁을 벌였다. AI·사이버 보안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기술력과 개발 경험, 개발 전략 및 기술, 목표의 실현 가능성, 시장성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SK텔레콤은 대규모 산학연 협력 체계와 자체 AI 모델 개발 경험 등을 앞세웠다. 복수의 AI 에이전트가 역할을 나눠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연결·관리하는 ‘하네스’를 구축하는 전략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를 중심으로 LG CNS와 LG AI연구원,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샌즈랩, S2W, 이스트시큐리티, 티오리한국 등 AI·보안 기업이 참여한다.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려대, 포스텍 등 대학·연구기관도 힘을 보탠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등 실제 보안 수요

기관도 참여해 모델 개발에서 검증과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보안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도 참여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클라우드와 LG CNS는 AI 모델부터 인프라와 보안, 데이터까지 자체 기술을 활용해 국내 사이버 보안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와 LG AI연구원의 ‘엑스원’ 등 독자 AI 모델 개발 경험도 활용한다.

특히 네이버클라우드와 SK텔레콤은 정 전부터 자체 보유한 엔비디아 B200 GPU 4000장을 투입해 모델사 전학습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빛나 기자 vitna@

metro

업계 “공급사 중심 가격 흐름 지속 가능성”

▶▶ 1면 ‘서버용 D램 부족’서 계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서 D램 생산능력 확대 계획도 구체화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부터 화성캠퍼스 제1단지(H1)에 범용 D램 엔드랩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 제2단지와 천안캠퍼스에 분산된 엔드랩 설비를 H1으로 이전하고 남은 공간에는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방식이다.

엔드랩은 메인랩에서 만들어진 메모리 소자를 연결하는 웨이퍼 전공정의 마지막 단계다. 생산시설을 한곳에 모으면 공간 이동 시간을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작업이 마무리되면 연말 삼성전자의 범용 D램 생산능력이 연초보다 약 15%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4월 청주 M15X를 중심으로 10나노급 5세대(1b) D램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당시 웨이퍼 기준 월 2만장에 못 미쳤던 생산능력을 내년까지 월 8만장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증산을 위해 극자외선(EUV) 장비를 M15X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1b D램은 HBM뿐 아니라 서버·PC·모바일용 DDR5와 LPDDR 계열 제품에 적용된다. 10나노급 6세대(1c) D램 양산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HBM 생산 확대가 이어지면서 일반 D램 공급 여력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서버 D램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공급사 중심의 가격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hyeon@

발전5사 ‘한국발전’으로 재편… 석유·가스·항만공사 단일화

25년 만에 발전 공기업 한 법인으로 R&D·재생에너지 투자기능 일원화
자원개발·수급 묶어 해외 협상력 강화
4개 항만기관 합치고 석탄공사 청산
고용승계에도 노조 반발 등 변수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핵심 역량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대대적인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나선다. 과거 경쟁 도입을 위해 분할됐던 거대 인프라 기관들을 다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유사·중복 기능 정비와 부실 기관 청산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번 구조개혁을 통해 줄어드는 공공기관은 전체의 약 20%인 109개다. 부문별로는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15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83개가 각각 정비된다.

◆ 25년 만에 뭉치는 발전 5사… 석유·가스공사도 합쳐 ‘글로벌 경쟁력’ 확보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나뉘어 운영되던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가 25년 만에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재통합된다. 그동안 발전사별로



정부가 행정,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발표한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모습.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을 우선적으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차질없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과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의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시스

연간 500억 원의 R&D 비용과 2,000억 원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각각 분산 투자해 오던 비효율을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일원화해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법인 본부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본부’가 신설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역시 하나로 합쳐진다.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글로벌 공급

망 위기에 대응해 해외 자원 탐사·비축 및 가스 수급 기능을 단일 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제 자원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등 석유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다.

반면,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말 기준 2조 5,900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영업활동 없이 연간 750억 원 이상의 이자비용만 발생하던 석탄공사는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한 뒤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조속히 폐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모적 경쟁을 벌이던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돼 4개 지역지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정책·기획 기능을 통합하고 해외 거점 공동 조성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

◆ “밀실·줄속 추진” 노동계 격렬 반발…

고용 승계·본사 위치 두고 파행 우려도

정부는 대규모 통폐합에 따른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의 고용 승계를 100%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나 복리후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일 공공운수노조와 금융노조 등 노동계는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한 “속도전·밀실·줄속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에 즉각적인 구조개혁 중단과 실질적인 노정 협의 및 공론화 절차를 촉구했으며, 일부 금융노조는 총파업 연대 가능성까지 내비쳐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통합 기관의 본사 소재지를 둘러싼 지역 지자체 간 주도권 싸움과 석유공사·가스공사의 막대한 부채 승계 문제 등 구조적 난제가 얹혀 있어, 향후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거센 진통과 파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본격화 내년부터 수도권 기관 옮긴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세종 이전
민간건물 임차 ‘선도 이전’ 적극 활용
기관별 분산 대신 지역별 집적 배치
주택·교육·원거리 이주지원 확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주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남아 있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이전을 위해 청사신축에 드는 물리적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하는 ‘선도 이전’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이를 통해 청사 건립이 전이라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시작해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2차 이전에서는 과거와 같은 기관별 ‘단독 분산’ 방식을 지양한다. 대신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존 혁신도시와의 연계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집적·집중 배치’ 원칙을 적용한다. 아울러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원활한 안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 주택 공급, 자녀 교육 지원, 원거리 이주 지원책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을 크게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 “수도권 과밀화 차단 및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정부가 이 같은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이후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국토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국정 과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기대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예산 집행, 신규 인재 채용, 임직원 가구 이주 등을 동반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전 기관이 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앵커 기관 역할)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신산업 생태계가 크게 확장될 수 있다. 행정 및 공공 기능이 지방 거점으로 연계·확산됨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금융 및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금융 경쟁력 약화, 정주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사 갈등과 정국 난항이 예상된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거점 배치가 추진되면서, 알짜 기관을 유치하려는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 기관 유치에 실패한 지역과의 격차 확대 문제나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높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드러났듯, 직원 혼자만 이주하고 가족은 수도권에 남는 ‘나홀로 이주’나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지역 내 실질적인 인구 정착 및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대폭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한용수 기자



평화 혹은 붕괴, 지구행성사회의 문명 미학을 향해

Peace or Collapse - Aesthetic Pathway to Planetary Civilization

우주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평화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파멸의 절구가 없었을 삶.
기후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지속되었을 생명.
인류의 시작엔 이유가 없으나 종말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와 우주는 인간의 모든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과학기술이 앞서가도 인간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면,
문명은 스스로 미래를 잃게 됩니다.

평화는 못 생명을 위해 피는 꽃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의 차이를 지우지 않고 조화의 결을 빚어내는 '문화 세계'.
지구행성사회의 문명 미학입니다.

지식과 상상이 문명사적 공동번영을 위한 의식이 되고,
깊은 평화의 우주를 펼치는 '학문과 평화의 여정'.
경희가 열어갈 미래 시민의 길입니다.

1981년, 경희가 제안한 '세계평화의 날'과 '해'는 유엔 제36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세계평화의 해는 1986년이었고, 세계평화의날은 매년 9월 21일에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유산은 2026년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계평화의 날 결의안(SR 113)'이 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오늘의 평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접수기간 : 2026. 9. 8(화) 10:00 ~ 11(금) 18:00
입학정보 : iphak.khu.ac.kr 입학상담 : 1544-2828
원서접수 : www.uwayapply.com

경희사이버대학교

2027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학 부 접수기간(예정) : 2026. 12. 1(화)~ 입학상담 : 02)959-0000
원서접수 : go.khcu.ac.kr
대학원 접수기간(예정) : 2026. 11. 16(월)~ 입학상담 : 02)3299-8808
원서접수 : grad.khcu.ac.kr

“중부세 유턴에 매도압력 하락… ‘대출 절벽’ 매수자도 없어”

부동산 현장 르포

반포·대치동 일대 가보니

집주인, 매물 거두지 않고 ‘관망’
매도보다 ‘입주’ 실거주 기간 채워
서울 아파트 매물 한달새 12% 늘어
45억 집 40억에 내놔도 매수자 없어
집값 높아 대치동 학군수요 줄어

지난 2일 찾은 서울 반포·대치동 일대. 부동산공인중개업소는 비교적 평온했다. 정부의 중부세안이 수정됐지만 집주인들이 곧바로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진 않는 분위기였다. 애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었던 만큼 집주인들이 세금 상담을 받으며 관망하는 심리가 강했다.

반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식 연휴를 전후해 가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고 국회 후속 논의까지 지켜본 뒤 보유 여부를 결정하려는 분위기”라며 “매도보다는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 직접 입주하겠다는 집주인이 많다”고 덧붙였다.

◆ 중부세 강화 일부 철회… 아직 관망세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면서 서울 고가주택 시장의 매도 압력이 다소



서울 시내 한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세제 개편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집주인은 여전히 매도 여부를 저울질하고, 매수자들은 대출 규제와 높은 가격에 물러서며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역시 부부 각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해 합산 12억원을 적용한다.

중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도 백지화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수정으로 세금을 피해 집을 처분

하려던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유인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전세 놓은 이들의 세금 증가 폭이 예상보다 작아져서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증가했다.

3일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3일 6만 409건에서 이달 1일 6만 7695건으로 한 달 사이 12% 늘었다.

특히 강남구 매물이 1만 1041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8975건과 5903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 3구 매물은 총 2만 5919건으로 서울 전체 매물의 38.3%를 차지했다.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는 집을 처분한

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반포동의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100억원 안팎의 주택을 팔고 동작이나 송파로 옮기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주택을 고소득 40대가 매수하기도 한다”면서도 “보유세가 올라도 감당하면서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 가격 5억원 낮춰도 매수 실종

공인중개업소 현장에서는 매물 증가보다 거래 부진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다. 대치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다시 12억원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8·13대책 이후 집을 팔려는 집주인은 늘었지만 거래가 안 된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가격을 수억원 낮춰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45억원짜리 집을 40억~41억원에 팔겠다는 집주인도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대출을 받기 어려운 데다 수천만원대 보유세까지 부담해야 하니 젊은 수요자가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치동 학군 수요도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반응이다. 그는 “학군에 진입하려면 10월 말까지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데도 새로 들어오는 가구가 눈에 띄지 않는다”며 “집값이 너무 높아 대기 수요 자체가 줄어든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중

전 수준으로 되돌렸지만 중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기조는 유지했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여전히 커 집주인들이 매도 결정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564건으로 전월보다 15.2%, 전년 동월보다 22.6% 감소했다. 서울 전체 주택 매매거래량도 1만 852건으로 전월 대비 10.3%, 전년 동월 대비 16.8% 줄었다. 강남권의 거래 위축은 더욱 두드러졌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의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2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8% 급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 매물을 제한하고 고가 1주택자의 보유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대출 규제와 높은 주택가격으로 매수자의 자금 여력이 제한돼 거래가 가격 상승으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를 통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그대로인 만큼 시장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인력 배치전환, 법에 ‘쟁의대상 제외’ 명문화 해야”

고용부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경영계, 교섭기준 명확화 긍정 평가 배치전환 불확실성, 경영활동 제약

경제계가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시행지침에 그치지 않고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가 인력 배치를 둘러싼 노사 분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더라도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장 신설·이전과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도 경영상 결정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부는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를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례로 직접 제시했다. 다만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으로 근로조건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경제계는 교섭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배치전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지침이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했다. 다만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은 인력 배치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과 신규 투자에 필요한 인력 이동은 성격이 다른 만큼 노동쟁의 대상에서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기업투자와 공장·설비 신설·증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형성되거나 확대된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배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숙련·연구인력을 신규 채용만으

로 확보하기 어려워 인력 배치를 놓고 교섭이나 쟁의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는 인력 배치가 투자 실행과 직결된다. 새 생산라인의 초기 수율을 안정시키려면 기존 사업장의 숙련 인력을 투입해 신규 인력에게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서 인력 재배치는 투자의 필수 업무가 아니라 곧 투자 실행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번 지침으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자체는 교섭·쟁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재계는 실제 투자에 필요한 인력 이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남았다고 보고 있다. 배치전환을 둘러싼 노사 분쟁

이 장기화되면 투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가 법 명문화화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주문했지만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위임 근거가 없어 노동부는 행정지침을 택했다.

이에 재계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의 쟁의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대통령 발언 한마디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을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양성운·구남영 기자 ysw@



metro

한화오션, 태국서 7300억 호위함 위협 선정 기대감

2030년 특수선 매출 4조 목표
13년만에 태국 수출재개 노력

한화오션이 마지막 해외 군함 신조 주국인 태국에서 13년 만의 수출 재개를 노린다. 오는 2030년 특수선 매출 4조원을 목표로 해외 사업 확대에 나선 가운데 태국 차기 호위함을 시작으로 잇따른 수주 기회를 실제 성과로 연결할지 주목된다.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태국 해군이 추진하는 약 175억바트(약 7300억원) 규모의 4000톤(t)급 차기 호위함 1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비롯해 싱가포르·

스페인·튀르키예 업체들이 경쟁 중이다.

한화오션은 전신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3년 수주해 2018년 인도한 태국 해군 기함 푸미폰함을 발전시킨 ‘오션-40F(OCEAN-40F)’를 제안했다. 태국 함정 운용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한화오션의 해외 군함 신조 신규 수주는 지난 2013년 태국 호위함 이후 10년 넘게 끊긴 상태다. 이번 사업을 따내면 태국에서 13년 만에 해외 군함 신조 수주를 재개하게 된다.

HD현대중공업은 약 40% 수준의 현지 생산 비중을 제안하며 맞서고 있다. 필리핀 수상함 수출과 페루 현지 공동건조 경

험도 강점으로 꼽힌다.

태국에 이어 약 2조원 규모의 필리핀 첫 잠수함 도입 사업도 차기 수주전으로 꼽힌다. 해외 현지 보도에서는 연내 사업 방향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KSS-III 배치-II 계열 잠수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에서 수상함 수출 실적을 쌓은 HD현대중공업과 프랑스 네이빙그룹, 스페인 나반티아,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등도 경쟁 후보로 거론된다.

태국과 필리핀 수주 결과가 주목되는 것은 한화오션이 특수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한화오션은 지난



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III Batch-2 잠수함. /한화오션

2023년 2조원 유상증자 계획 중 9000억원을 특수선 사업에 투입하기로 하고 생산 시설을 확충했다. 목표는 2030년 특수선 매출 4조원, 2035년 5조원이다.

다만 중장기 목표와 비교하면 현재 특수선 실적은 아직 격차가 크다. 1분기 매출 3183억원·영업손실 208억원, 2분기 매출

3272억원·영업손실 29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프로젝트와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고정비 부담,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 마케팅 비용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약 8380억원 규모의 KDDX 상계설계·선도함 계약을 확보했지만 특수선 야드의 고정비 부담은 KDDX 공정이 본격화되는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한화오션이 가장 공들이는 중장기 핵심 시장이다. 한화오션은 최근 미 해군의 정보요청서(RFI)에 참여했고, 한화그룹은 오스탈USA 인수를 추진하며 현지 생산 기반 확대에 나섰다. 마국과 함께 유럽 중동·남미에서도 그리스·칠레 잠수함과 중동 신규 함정 사업 등 수주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metro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지역 곳곳에 행복을 더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전하는
KB작은도서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청년과 우수기업을 한 곳에 모아
채용 상담부터 면접까지 연결하는
KB굿잡 취업박람회

사장님의 걱정을 덜어주는

상권분석부터 경영지원까지
전문가의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KB소상공인 컨설팅센터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가

국민 모두에게 드리는 희망의 약속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서비스)계약 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6-3904-1호(2026.08.18.), 유효기간 2026.08.18.~2027.08.17.까지

 KB 국민은행

여야, ‘용적률 0.1배’ 이견… 부동산 공급법 후속법안 무산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17건 처리
공급 확대 공감, 방법론은 입장차
국토부 장관 교체 등 변수 전망

여야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용산공원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공급 후속조치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만 처리했다. 특히 도심 내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와 관련, 용적률 상향 폭과 소형주택 건설 조건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극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17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대를 모았던 부동산 관련 법안은 여야가 논의를 지속했으나 타결되지 못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용산공원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촉진법(도촉법) 등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사실상 국토교통부



3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처리되고 있다. /뉴시스

장관과 서울시장이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0일, 26일 본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상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기선 국토부 제2차관을 지명한 가운데, 실질적인 부동산 공급 법안 처리는 홍 후보자의 내각 입성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

온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김(전 주한미군 주둔지) 등 복합시설조정지구에 공원·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 서울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도심 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예

방 및 조정하고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건물 전체의 연면적 합계)을 완화해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공원 내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은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를 위해 대규모 녹지를 남겨둬야 하며, 여당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등 정비사업 촉진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제안해 협상이 진전되는 듯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용적률 상향 폭을 높이라며 역(逆)제안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민간 정비사업에 용적률을 1.2배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을 1.3배로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총 바닥 면적이 넓어져 층수가 많아진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용적률 규제 완화 제안을 두고 “민주당은 완화되는 용적률에는 전 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만 건설할 수 있도록 또다시 조건을 달았다”며 “바로 이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공공 정비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왜 1.2배인가”라며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면서 왜 또 주택 규모까지 제한하는가. 이럴 거면 차라리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하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업성 부족 때문이다. 공사비는 치솟고 각종 규제와 부담은 그대로”라며 “그러다 보니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싶어도 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도 과감하게 풀어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국힘, 선관위 개혁안 당론 채택 ‘보류’

선관위 개혁 81개 법안 검토
의원 의견 추가 수렴하기로

국민의힘이 3일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한 선관위 개혁 법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했지만, 당론 채택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당은 일부 법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3일) 정책의총은 지난 6·3 지방선거 진상 규명 및 선관위 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발의했던 조직법, 사전투표를 없애는 법안 등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협이된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였다”며 “(그렇지만) 아직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의견을 묻고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투표용지에 대한 관리 방법 및 선관위 조직에 대한 법을 전면 개정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것만 해서 81개다. 더 추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국민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시작해, 투표 관리뿐 아니라 수개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투표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모든 방안과 방법들을 전문가들과 모여 토론회도 하면서 법안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전체를 다양하게 손보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개혁안 세부 내용을 담은

자료를 의원들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은 채 특위의 설명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취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어떤 내용을 (미리 공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의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계속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3일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특위는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관위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해 왔다. /박경수 기자 gws0325@

李 대통령 잇단 경찰 부실 논란 “치안 전면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3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과 관련해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은 우리 치안에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이 연달아 불거지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0월 중 대법최소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므로, 이로 인한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한병도 “종부세 재검토는 국민 경청”

〈민주당 원내대표〉

종부세 정책 수정 논란에 반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를 현행인 12억원으로 유지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29일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

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우리 경제에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곳곳에 퍼지도록 필요한 재정의 역할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IS 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셨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확대 재검토 관련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野,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국조 추진

“정책 결정 과정·책임 소재 밝힐 것”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부위원회 위원들이 3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 등 정부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로 이번 사태를 끝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누가 이 정책을 만들었는지, 누가 도입을 밀어붙였는지, 충분한 위험성 검토와 투자자 보호 대책은 있었는지 그리고 청와대와 금융당국 사이에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정도의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위험 상품을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쳐 도입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특정 자산운용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점, 그리고 김 전 정책실장이 특정 금융회사 회장과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관련한 정책라인에 있었던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는 없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예진 기자 syj@

먼 우주의 통신사업부터

데이터센터

깊은 바다 속 해저케이블까지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어온 KT

이제 우리의 인프라 위에
국가, 산업, 일상에 꼭 맞는 AX 서비스를 더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끌겠습니다

AX Platform Company **kt**

향후 5년, KT의 인프라 전략투자 추진

- AI데이터센터 | '안산DC' 등 실수요 맞춤형 AI 데이터센터 20여개 신설 & 1GW 전력 인프라 추가 확보
- 해저케이블 | 90Tbps 이상 초대용량 해저케이블 확충을 통한 글로벌 연결성 강화

“가상자산 과세… 공정성 확보, 경쟁력 향상 균형 이뤄야”

민주당, 내년 시행 과세체계 점검

“가상자산 관련 소득 다양화
양도·대여소득 일률적 간주 어려워
체계 세분화, 과세구간 구분해야”

민주당이 오는 2027년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과세체계 점검에 나섰다. 지난 2020년 관련 법이 마련됐을 시기와 비교해 투자 형태가 다양해졌고, 금투세 폐지로 투자자산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서다. 관련 소득을 세분화해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관련 절차를 통합해 과세 및 납세 편의성을 제고한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3일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조세법학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체계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관련 수익의 과세체계 도입을 앞두고 관련법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법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문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2020년 도



박종후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오른쪽 네번째)과 김병일 전(前) 강남대학교 교수(왼쪽 네번째),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오른쪽 첫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입된 가상자산 과세는 몇 차례의 시행 유예를 거쳤음에도, 현장에서 지적받았던 인프라나 실무적 과세체계와 관련한 부분에서 현격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세수 확보 수단 만이 아닌, 가상자산 시장의 양성화와 활성화 측면에서도 과세체계를 논의해야 할 때다. 과세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아야 할 때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는 박종후 한국조세법학회 회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 과세체계, 무엇을 점검해야 하

는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박 학회장은 “가상자산 소득과 관련한 법률이 처음 마련된 건 지난 2020년도인데, 이후 인프라 부족, 이용자 보호 보완 등을 이유로 시행을 미뤘었다”면서 “시행 시기가 늦어지는 동안 가상자산 거래 유형은 다양해졌지만,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둔 관련법은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거래유형별 소득 구분이나 과세 시점, 금투세 폐지에 따른 투자자산 간의 형평성 등이 문제로 남아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리면서 “현행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나 대여에 따른 소득

으로 간주한다”라면서 “유동성 공급·스테이킹·렌딩 등 가상자산 관련 소득이 다양화한 만큼 일률적으로 양도·대여 소득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과세 체계를 세분화한다 해도 어디까지가 과세 대상인지, 어떤 행위를 소득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학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세분화되, 관련 체계는 통합해 신고의 어려움이나 행정 비용을 최소화한 ‘가상자산투자소득세(가칭)’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법적 적합성을 위해선 재굴이나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 등 행위별로 그에

맞는 소득을 구분하고,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과세 형평성도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통합해 과세하는 대신, 소득 유형별로 세분화해 과세 적합성을 확보하고 소득 신고 절차와 관련 집행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가상자산투자소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과세 체계의 마련을 위해선 과세 대상 소득 기준과 과세 시점 등이 법령과 행정 규칙으로 명확히 제시돼야 하며, 거래 방식에 따른 세제상의 유불리는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과세형평성과 과세중립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고자료 표준화와 통합, 관련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납세협력비용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김병일 전(前) 강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구성권 명지전문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김갑순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asj1231@metroseoul.co.kr



metro

PF사업장 관리… 주택 18만가구 공급 속도

금감원, 수도권 325곳 집중관리 사업장 담당자 지정, 자연요인 해소

금융감독원이 내년까지 착공하거나 준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을 집중 관리한다. 사업장마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자연 요인을 해소해 약 18만가구의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3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용 PF 사업장은 지난달 말 기준 502곳으로 약 30만가구 규모다. 금융권이 자체 펀드에 매각한 사업장 99곳, 약 3만가구를 합치면 관리 대상은 총 601곳, 약 33만가구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내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예상되는 325곳, 약 18만가구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

업장 수는 잠정치로 향후 전수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과 금융회사는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마다 담당자를 각각 지정한다. 금융회사 담당자는 사업 진행 과정의 애로사항과 이상 징후를 점검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고, 금감원은 필요한 지원책을 관계기관과 연결한다.

사업장은 진행 상황에 따라 정상진행·공급촉진·정상화지원·매각유도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일정대로 추진되는 사업장은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공급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찾는다. 일시적인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곳은 공급촉진 대상으로, 부실화 징후가 나타나 금융지원이 필요한 곳은 정상화지원 대상으로 분류한다. 매각 외에는 정상화가 어려운 사업장은 신속한 매각과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공급촉진·정상화지원 사업장에는 자연원인에 맞춰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한다. 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은 PF 신디케이트론과 PF 개발엔카리즈, 캠퍼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연결한다.

공공임대 전환을 원하는 사업장은 한국

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하고, 인허가나 시공 문제를 겪는 사업장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지원을 요청한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장도 추가 지원으로 착공이나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별 사업장 관리를 맡을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구성한다. 기존 5명이었던 PF 사업장 관리인력을 25명으로 확대하고 부동산PF평가관리단이 업무를 총괄한다. 검사국도 사업장 점검에 참여한다.

최우선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도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살핀다. 자연 요인을 해결하면 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밀착관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지난 1일부터는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PF 대주단과 시행사 등으로부터 자금지원 프로그램 관련 문의와 건전성 규제 개선 건의를 접수하고, 시안별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과 연결한다.

금감원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신속공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산업은행, LH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왼쪽부터) 박상준 셰어잇 대표, 김대명 더피씨엠어드바이저 대표, 조강태 엠지알브이 대표, 이은정 하나은행 WM본부장, 김대일 패스트파이브 대표, 양승원 경동하우징 대표. /하나은행

하나은행, 부동산 가치 상향 솔루션 선포

‘하나 부동산 밸류업 플랫폼’ 가동

하나은행이 상업용 및 노후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종합 부동산 솔루션을 선보인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보유한 부동산을 진단하고 분야별 전문기업을 연계하는 ‘하나 부동산 밸류업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고객의 부동산 자산을 분석한 뒤 개별 부동산의 특성과 활용 목적에 맞는 전문기업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단순 매입·매각 자문

을 넘어 기획과 설계, 시공, 임대차, 공간 운영 등 부동산 활용 전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지난 2일 서울을지로 본점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기업 5개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사는 빌딩 리모델링 및 밸류업 전문 시공사 경동하우징을 비롯해 부동산 개발프로젝트관리(PM)기업 더피씨엠어드바이저, 코딩 주거 브랜드 ‘맹그로브’ 운영사 MGRV, 팝업스토어 및 상업용 유희공간 솔루션 기업 셰어잇, 공유오피스 플랫폼 패스트파이브 등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리 상승기… 은행 정기예금 1000조 돌파

주식 등 위험자산서 ‘머니 유턴’
연 4% 육박 고금리 영향도 커져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사이 시중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향하고 있다. 예금금리가 연 4%에 육박하면서 변동성이 큰 주식 대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택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달 말 정기예금 잔액은 1005조231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0조2920억원 증

가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증시가 조정을 받은 최근 두 달 동안 5대 은행 정기예금은 총 55조8321억원 늘었다.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은행 예금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 유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금으로 자금이 몰리는 배경에는 높아진 금리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48%로 올해 들어 0.59%포인트(p) 상승했다. /나유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 82주 연속 상승세

전주비 0.22% 올라 상승폭은 둔화
성북 0.54%, 중랑 0.52% 최대폭
‘세제 개편안’ 강남·서초, 4주째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세금 부담에 강남구와 서초구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31일

기준 전주 대비 0.22% 올랐다. 전주(0.29%)보다 상승폭은 둔화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 가격을 하향 조정할 매물이 나왔지만 수요가 높은 중소형 규모 및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성북구는 한 주간 0.54%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랑구(0.52%) ▲노원

구(0.50%) ▲강북구(0.45%) ▲동대문구(0.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서초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부담으로 하락세가 4주째 이어진 것은 물론 하락폭도 크게 확대됐다. 강남구의 하락률은 0.41%에 달했으며, 서초구 역시 0.23% 내렸다.

경기는 0.19% 올랐다. 수원 영통구가 0.65% 상승한 것을 비롯해 성남에서 중원구와 분당구가 각각 0.54%, 0.53%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7%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호석화그룹, 신소재 R&D 강화 친환경·배터리 등 사업확장 속도

금호석화 등 계열사 사업 고도화
기술력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
“탄소저감 등 산업현장 변화 대응”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연구개발(R&D)을 앞세워 기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친환경 소재와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글로벌 석유화학업계의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캠 등 계열사별로 주력 제품 고도화와 신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전기차용 타이어에 사용되는 고기능성 합성고무인 솔루션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SSBR)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연산 3만5000톤 규모의 증설을 마치고 상업생산에 들어가면서 고부가 합성고무 시장 대응력을 높였다.

친환경·마래 소재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연간 약 7만6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설비를 구축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폐가전에서 회수한 재활용 아크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 연구원들이 소재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릴로나이트릴 부타디엔 스타이렌(ABS)을 자동차 내장재용 고사양 소재로 전환하는 기술도 개발했으며 포스코퓨처엠, 비이아이(BEI)와는 차세대 무음극 리튬메탈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수용성 친환경 에폭시 제품의 개발·상용화를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을 줄이고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작업환경 개선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오 기반 원료를 적용한 저탄소 에폭시 기술도 고도화하며 석유계 원료 의존도와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설비 투자와 인증 획득을 병행하고 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폴리우레탄 핵심 원료인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DI)의 생산능력 확대와 친환경·고기

능성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연산 10만톤 규모의 디보틀네킹 투자를 마치고 생산능력을 71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바이오 원료를 함유한 폴리우레탄 시스템과 자동차 시트용 경량 소재, 고성능 흡음재용 제품 개발에도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금호폴리캠은 최근 연산 7만톤 규모의 5라인 증설을 마치고 특수합성고무인 에틸렌프로필렌디엔모노머(EPDM) 생산능력을 연산 31만톤으로 확대했다. 새 생산라인에는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초저온 중합 기술을 적용하고 저압 냉동기와 폐열 회수 설비를 도입해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금호폴리캠은 전기차용 경량 소재와 주행 소음 저감 소재, 열전도·절연 소재로 제품군을 확대해 고부가 특수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업황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기존 주력 사업의 기술 고도화와 함께 재활용·탄소저감·차세대 배터리 소재 등 신규 분야로 연구개발 범위를 넓혀 산업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현대모비스, PE 시스템 등 유럽 생산 확대

슬로바키아 노바키 신공장 가동

현대모비스가 유럽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PE(Power Electric)시스템 양산에 돌입하며 현지 전동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핵심 부품의 현지 생산능력까지 확대하면서 그룹 차원의 유럽 전동화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2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 트렌친주 노바키에서 PE시스템 신공장 가동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바키 공장은 현대모비스가 유럽에 구축한 첫 PE시스템 생산 거점이다. 체코와 스페인에서 배터리시스템(BSA)을 생산하고 있는 데 이어 유럽 내 세 번째 전동화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PE시스템은 전기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통합한 전기차 구동 핵심 장치로, 사실상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린다. 신공장은 약 10만6000㎡ 부지에 연면적 85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연간 28만개의 PE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약 2500억원을 투입해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유럽 고객사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의 유럽 현지 생산 확대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사업과도 맞물린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13만1032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전동화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현지에서 핵심 부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면서 완성차 판매 확대에 따른 부품 공급 안정성과 대응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기아를 비롯해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볼보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거점을 두고 있어 유럽 전동화 부품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현대모비스는 노바키 공장을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전동화 부품 공급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국내 출시

256GB 단일 모델… 104만5000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의 인공지능(AI)과 카메라 주요 기능을 담으면서 가격 부담은 낮춘 ‘갤럭시 S26 FE’를 내놓는다. 원하는 인물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영상 편집부터 움직이면서도 수평을 유지하는 촬영까지 최신 기능을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4일 갤럭시 S26 FE를 국내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256GB 단일 모델로 블루베리와 그라파이트, 피스타치오 등 3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가격은 104만5000원이다.

갤럭시 S26 FE에는 최신 소프트웨어인 원 UI 9(One UI 9)를 기반으로 S26 시리즈와 최신 폴더블폰에서 선보인 촬영 기능을 적용했다. ‘마이 팬캠(My FanCam)’은 영상에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움직임을 자동으로 따라가며 화면 중앙에 배치한다. ‘슈퍼 스테디(Super Steady)’에는 수평 고정 기능을 지원해 움직이면서도 안정적인 구도로 촬영할 수 있다.

AI 기반 개인화 기능도 강화했다. ‘나우 브리프(Now Brief)’는 날씨와 건강 등 필요한 정보를 모아 보여주며, ‘나우



삼성전자 모델이 프리미엄 기능을 갖춘 ‘갤럭시 S26 FE’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넛지(Now Nudge)’는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해 다음에 필요한 작업을 제안한다. ‘서클 투 서치 위드 구글(Circle to Search with Google)’은 이미지 속 여러 제품이나 장소, 사물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성능을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 전작의 엑시노스 2400에서 3나노미터(nm) 공정 기반 엑시노스 2500(Exynos 2500)으로 교체했다. 카메라는 후면에 5000만 화소 광각과 1200만 화소 초광각, 800만 화소 망원 등 3개를 탑재했으며 전면에는 1200만 화소 카메라를 적용했다.

/구남영 기자

LG전자, 프리미엄 가전 등 AI 홈 신기술 공개

유럽 가전 전시회 ‘IFA 2026’ 참가
홈로봇 등 150개 제품·솔루션 선보

LG전자가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A 2026’에서 인공지능(AI) 가전부터 에너지 관리까지 아우르는 AI홈 신기술을 공개한다. 이용자의 생활 패턴을 반영해 가전을 스스로 제어하고 집 안의 에너지 사용까지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LG전자는 오는 4일부터 닷새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26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3745㎡ 규모의 전시 공간에서 약 150개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인다.

먼저 AI홈 허브 ‘LG 씽큐 온(ThinQ ON)’에 자율형 AI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한 ‘씽큐 클로(ThinQ Claw)’를 처음 공개한다. 이용자와 대화하며 생활 패턴과 상황을 파악한 뒤 필요한 기능을 먼저 제안하고 실행하는 기술이다.

씽큐 클로를 활용하면 외출 중에도 채팅으로 집 안 가전을 제어할 수 있다. 웹 검색과 캘린더 등 외부 서비스와도 연동된다. 귀가 시간에 맞춰 실내 온도와 공기질을 조절하거나 보유 식재료와 가족 일정을 바탕으로 메뉴와 조리 순서를 제안하는 식이다.

집 안의 전력 사용을 관리하는 가정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도 선보인다. LG전자가 2024년 인수한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애틜움(Athom)의 ‘호미(Homey)’를 활용해 가전과 냉난방공조(HVAC),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하나로 연결한다.



모델이 홈로봇 ‘LG 클로이드’의 지휘 아래 제품과 기술, 서비스가 하나의 AI 생태계로 연결되는 모습을 담은 전시 콘텐츠 ‘LG AI 오케스트라’를 감상하고 있다. /LG전자

호미는 가전과 조명, 센서 등 5만개 이상의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이를 활용해 집에서 생산·저장·소비되는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고 전력 사용을 효율화한다.

AI홈 사업은 기업간거래(B2B) 시장으로도 넓힌다. ‘LG 씽큐 프로(ThinQ Pro)’를 통해 빌딩과 오피스의 가전과 HVAC, 에너지 설비를 통합 관리한다. 호미역시 향후 다세대 주택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한 B2B 솔루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럽 주거환경에 맞춘 가전 신제품도 대거 공개한다. LG전자는 빌트인 수준의 공간 활용성과 고효율 기술을 결합한 ‘핏 앤 맥스(Fit & Max)’ 제품군을 냉장고에서 세탁기와 건조기, 식기세척기까지 확대한다.

냉장고는 벽면 가구에 밀착해도 문을 최대 110도까지 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유럽 표준 가구 깊이인 600mm를 유지하면서 내부 용량을 확보했다. 식기세척기는 문을 열 때 하부 가구와의 간섭을 줄이는 구조를 적용했다.

에너지 효율도 강화했다. 세탁기는 유럽 최고 에너지 효율 등급인 A등급 기준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70% 추가로 줄였다. 식기세척기와 냉장고도 각각 A등급 기준보다 30% 가량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올해 말 출시하는 건조기 신제품은 기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높인다.

TV와 프리미엄 가전도 전시한다. 83형 무선 월에이퍼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W’를 비롯해 2026년형 LG 올레드 에보 AI와 마이크로 RGB 에보 등을 선보인다. 풀HD(FHD) 해상도에서 1000헤르츠(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와 홈 오디오 시스템 ‘사운드 스위트’도 전시한다.

전시장 입구에는 홈로봇 ‘LG 클로이드(LG CLOiD)’가 지휘하는 ‘LG AI 오케스트라’를 마련한다. 가전과 TV, 공조 제품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모습을 통해 가사 노동을 줄이는 ‘제로 레이버 홈(Zero Labor Home)’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포스코-BHP,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맞손’

저탄소 제철 기술개발 구체화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를 위해 글로벌 원료사와 공동 검증에 나선다. 다양한 철광석을 실제 공정에 적용해 원료별 성능을 확인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을 구체화한다.

포스코는 경북 포항 청송대에서 호주 광산기업 BHP와 수소환원제철 협력 계약(HyREX Collabo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공법인 HyREX의 상용 기술 검증에 협력한다. 포스코는 BHP의 철광석을 활용해 다양한 원료 환경에서 기술 성능을 시험할 계획이다.

HyREX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

로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포스코는 실제 원료 조건에서 공정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철광석의 특성과 품질에 따른 성능 변화를 시험해 최적의 원료 조건을 도출한다. BHP는 차세대 저탄소 제철 공정에서 자사 철광석의 활용성을 검증한다.

양사는 수소환원제철 원료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원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Scope 3 탄소 배출 저감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0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양사 간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자율주행 주도권 잡아라”… 현대차·KGM, ‘데이터 전쟁’

‘2028년 양산’ 실증 속도전

현대차, 광주 실증에 아트리아 AI 차량·SW 연계 데이터 생태계 구축
KGM, 강남 로보택시 20대 확대
실도로 운행으로 E2E 기술 고도화

현대자동차그룹과 KG모빌리티(KGM)가 국내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해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전남광주를 비롯한 국내 실증사업에서 차량과 플랫폼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는 반면, KGM은 서울 강남에서 로보택시를 직접 운행하며 실제 도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양사의 전략은 다르지만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민관·산학 협력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전략은 개별 차량의 자율주행 성능을 넘어 차량과 소프트웨어(SW), 모빌리티 플랫폼을 하나로 묶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중심에는 데이터 플라이휠이 있다. 차



KGM 구역형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에 운영되는 토레스 EVX.

량과 파트너사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하고 AI를 학습·개선해 향상된 기능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로 다시 차량에 배포하는 방식이다. 개선된 기능을 고객이 사용할수록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고 이를 다시 AI 학습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독자 개발한 엔드투엔드 모델 아트리아 AI를 중심으로 데이터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기아·포티투

닷·모셔널이 각각 확보한 데이터를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 생태계를 기반으로 그룹 내 센서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데이터 유니온’을 구축했다.

또 올해 말 시작되는 전남광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 실증사업에도 아트리아 AI를 투입해 돌발 상황 등 자율주행 AI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확보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본격적인 양산 적용 시점을 2028년으로 잡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첫 SDV 양산차에 레벨2+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대규모 주행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다. 이후 2029년부터 아트리아 AI를 양산차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L2+부터 L4까지 자율주행 전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실증 데이터 확보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우버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이오닉5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운행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과 운영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KGM은 상대적으로 ‘실도로 검증’에 무게를 둔다. KGM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디스와 차세대 엔드투엔드(E2E)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E2E 방식은 인지와 판단, 제어를 하나의 AI 시스템으로 처리

하는 기술로, KGM은 이를 통해 자율주행 제어 SW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강남에서는 실제 승객을 태운 로보택시 운행 범위를 확대한다. KGM은 SWM과 협력해 기존 코란도 EV에 이어 토레스 EVX를 추가 투입하고 운행 구역도 강남 전역으로 넓힌다. 올해 말까지 로보택시 생산 물량을 20대 이상으로 확대해 운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연구실을 넘어 상용 서비스 단계로 진입하면서 어느 기업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AI 학습과 안전성 개선에 연결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박민우 현대차그룹 AVP본부장 겸 포티투 대표표는 지난달 26일 열린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앞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누가 더 많은 경험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 더 빠르게 AI 학습으로 연결하느냐가 새로운 경쟁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영우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2030년까지 中企 수출 1800억달러 정조준

중기부 ‘4대 혁신 전략’ 본격 추진 ‘글로벌 스케일업 500’ 신설 집중육성 K-브랜드 전략품목 1000개까지 확대

정부가 수출기업 저변 확대, 수출유망 품목 발굴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1500억 달러를 2028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2030년까지 1800억 달러까지 늘린다.

10만개를 넘지 못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2030년까지 11만2000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1000만 달러 이상 수출 강소기업 숫자도 지난해 기준 2279개사에서 2030년까지 290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 지원 정책을 제고하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의원입법으로 돼 있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에도 가속도를 붙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4대 혁신 전략에는 ▲‘글로벌 스케일업 500’ 신설로 고속성장 지원 ▲품목·방식



중소벤처기업부 심재윤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일 서울에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다양화를 통한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 ▲인도, 유럽, 싱가포르, 몽골,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협력 채널 기반 신시장 진출 활성화 ▲수출정책 지원 기반 정비, 지원·분석·플랫폼 통합 등의 내용을 두루 담았다.

중기부 심재윤 글로벌성장정책관(국장)은 전날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로드맵 수립을 돕고 다년·묵음 지원으로 기업의 고속성장을 유도할 것”

이라며 “패션, 푸드, 뷰티 디바이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차세대 K-브랜드 전략품목으로 발굴·육성하고 소비재 수출에 필요한 물류·지식재산·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뷰티·푸드·패션·라이프, 신산업 등 소비·산업재 전략품목군과 수출 고성장 잠재기업 풀(pool) 등을 활용해 후보군을 추리고 이 가운데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소비재 등 신성장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포함해 내년에만 총 500개사를 선정해 80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 ON 2000’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에 도전하는 청년창업가, 소상공인, 지역기업, 수출제도전 기업 2000개를 선정해 성장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110개사를 선정한 ‘K-브랜드 전략품목’은 2030년까지 K-뷰티 400개(비 화장품 150개 포함), K-푸드 200개, K-패션 200개, K-라이프 200개 등 총 1000개사를 선정해 홍보·마케팅,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돕는다.

/김승호 기자 bada@

SK이노, 울산CLX ‘듀얼 브레인’ 제조AI 혁신

생산·예지정비·안전에 AI 적용
로봇·드론 활용 검사체계 공개

SK이노베이션 울산CLX가 생산 최적화와 설비 예지정비, 안전관리 등 정유·석유화학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개하고 AI의 판단력과 현장 엔지니어의 경험을 결합한 제조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CLX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리는 ‘WAVE 2026(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제조 AI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참여 업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SK 전시관에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서비스에서 제조 AI로 이어지는 그룹의 AI 밸류체인이 구현된다. 전시관 입구에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울산 남구 용연동에 건설 중인 ‘SK AI 데이터센터’ 모형을 설치해 데이터센터가 제조업의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WAVE 2026(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 SK관 조감도. /SK이노베이션

전시 핵심은 AI의 판단력과 울산CLX 엔지니어의 현장 경험을 결합한 ‘듀얼 브레인(Dual Brain)’이다. 전시관 중앙에 듀얼 브레인 포털(Dual Brain Portal)을 설치하고 생산 최적화와 설비 예지정비, 안전·보건·환경(SHE) 등 제조 현장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생산 최적화 AI 존에서는 AI가 여러 공정의 수많은 변수를 분석해 최적의 운전 조건을 찾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신안보 혁신기업 발굴·육성 본격화

이달 우수기업 선별 특별법도 추진

정부가 미래 신안보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9월 중 우수기업 풀(pool)을 구성한다.

우수기업 풀 등록→후보기업 지정→혁신기업 지정을 통해 신안보 전략분야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 발의도 적극 추진하는 등 더욱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에서 관계부처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 매출 1000억 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풀은 중기부의 ‘모두의 챌린지 방안’ 선정기업, 방사청의 방산혁신기업, 분야별 공공인증 기술·제품 인증기업, 안보·방산 관련 정부부처 사업 참여사 등이 대상이다. 풀 구성을 위해 협단체 추천, 기업 직접 신청 등도 받을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포스코그룹

AI·로봇 등 미래인재 채용

포스코그룹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미래 사업을 이끌 인재 확보에 무게를 싣는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분야 채용을 강화하고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선발 체계도 손질했다. 3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DX, 포스코이앤씨, RIST 등 6개사가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생산·설비 기술과 영업·마케팅, 안전·보건, AI 등 60여개 직무에서 세 자릿수 규모의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에쓰오일, AI 데이터센터 냉각기술 실증

KTNF·GST와 액침냉각 상용화 추진

에쓰오일(S-OIL)이 국산 서버 개발전문기업 KTNF, 액침냉각 장비업체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GST)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 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에쓰오일은 KTNF, GST와 AI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 기술을 실증하고 관련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발열이 증가하는 가운데 액침냉각 기술의 성능과 안정성을 실제 운영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액침냉

각은 서버 등 전자장비를 비전도성 냉각유에 직접 담가 열을 식히는 기술이다.

실증 테스트는 KTNF 본사에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센터에서 진행된다. 에쓰오일은 액침냉각유 ‘S-OIL e-쿨링 솔루션’을 공급하고 성능 분석과 기술 자문을 맡는다. KTNF는 서버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GST는 액침냉각 장비 운영과 성능 검증을 담당한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KTNF의 서버와 에쓰오일의 액침냉각유, GST의 냉각장비를 연계한 국내 액침냉각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향후 다양한 데이터센터 사업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2026년 9월 16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주 제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일 시 2026년 9월 16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40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
	14:40~15:10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
강 연	15:10~15:40	김병우 대동그룹 개발부문장 전무 : 농업 모빌리티의 AX 및 GX 현황
	15:40~16:10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 New Commerce에 대응하는 물류
	16:10~16:40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 : 자율주행이 바꿀 한국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 -부산항 수출화물에서 미국 대륙횡단 왕복 노선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카톡 하나로 택시·음악·쇼핑까지… 카카오 ‘멤버십’ 출사표

이르면 내달 베타·테스트 형태
구체적인 출시일·가격 미확정
AI 에이전트 접목해 이용 확대
구독시 할인·포인트 적립 등 혜택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택시와 음악, 웹툰, 쇼핑 등 주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유료 멤버십을 추진한다. 네이버와 쿠팡이 각각 쇼핑 콘텐츠와 배송·배달을 앞세워 유료 회원을 확보한 가운데 카카오토도 50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구독 경제’ 경쟁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주요 서비스와 이용자 혜택을 연계한 통합 유료 멤버십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0월 베타 또는 테스트 형태로 서비스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출시 시점과 가격, 혜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연내 베타나 테스트 형태로 선보이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빠르면 10월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멤버십의 중심에는 카카오톡이 자리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비롯



카카오 판교 아지트 입구

/카카오

해 카카오톡의 방대한 이용자 기반을 다른 서비스 이용과 결제로 연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메신저를 중심으로 모바일티와 음악, 웹툰·웹소설, 커머스 등으로 사업을 확대했지만 서비스별 이용 체계는 각각 운영돼왔다.

최근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수익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안에서 검색과 탐색에 그치지 않고 주문·예약·결제 등 실제 행동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를 카카오톡에 접목

에는 카카오톡의 방대한 이용자 기반을 다른 서비스 이용과 결제로 연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메신저를 중심으로 모바일티와 음악, 웹툰·웹소설, 커머스 등으로 사업을 확대했지만 서비스별 이용 체계는 각각 운영돼왔다.

최근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수익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안에서 검색과 탐색에 그치지 않고 주문·예약·결제 등 실제 행동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를 카카오톡에 접목

해 이용자 체류시간과 서비스 이용 빈도를 높이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실적에서도 카카오톡 기반 사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카카오톡의 특별비 매출은 64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광고·구독 매출은 3999억원으로 14% 늘었다.

지난달 발표한 인적분할 이후 사업구조와 통합 멤버십의 관계도 관심사다.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AI·광고·커머스에 집중하는 ‘카카오AI’와 계열사 관리 및 신사업 투자를 담당하는 ‘카카오X’로 회사를 나누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이 인적분할과 통합 멤버십을 직접 연계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사업 역할을 분리하는 동시에 이용자 측면에서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서비스 간 연결을 강화하는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이미 선발주자가 자리 잡은 국내 유료 멤버십 시장에서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할 만한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나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월 4900원에 쇼핑 혜택과 함께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PC 게임패스, 네이버웹툰·시리즈 가운데

매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EBS와 손잡고 월 9900원을 추가하면 전자책 약 500종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상품도 추가했다.

쿠팡은 월 7890원의 와우 멤버십을 통해 무료 배송·반품을 비롯해 쿠팡이츠 무료 배달과 쿠팡플레이 등 쇼핑·배달·콘텐츠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이용자 접점을 갖고 있지만 무료 메신저 이용자를 유료 멤버십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택시와 음악, 콘텐츠, 쇼핑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를 얼마나 매력적인 가격과 혜택으로 묶어낼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유료 멤버십 시장은 이미 네이버와 쿠팡 등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가진 사업자들이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며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접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택시나 콘텐츠, 커머스 등에서 이용자가 실제로 구독료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혜택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위기론’ 지스타에 크래프톤 구원투수 등판

올해 메인 스폰서 AI 기업이 많아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불참
크래프톤, 10년 연속 참가 기록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참가가 저조해 ‘위기론’이 불거진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에 크래프톤이 참가를 확정했다. 지난달 공개된 주요 참가사 명단에서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등 이른바 ‘3N2K’가 모두 빠진 가운데 크래프톤이 참가를 공식화하면서 대형 게임사의 빈자리를 일부 메우게 됐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오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6’에 참가한다. 크래프톤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지스타에 참가하게 됐다.

올해도 벡스코 제1전시장 일반 관람객 대상 BTC관에 부스를 마련한다. 구체적인 출품작과 부스 구성, 현장 프로그램 등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크래프톤의 참가 결정이 주목받는 것은 올해 지스타가 국내 대형 게임사의 참여 저조로 어느 때보다 거센 위기론에 직

면했기 때문이다.

지스타조직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1차 BTC 참가사에는 웹젠과 구글플레이, 팀42, 호요버스, 넷이즈게임즈, 빌리빌리 게임, 센추리게임즈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 주요 게임사 가운데서는 웹젠 정도만 참가를 확정하면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라는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3N2K가 모두 1차 명단에서 빠진 것이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지스타에서 대규모 부스를 운영하며 신작을 공개해온 대형 게임사들의 참여가 줄어든 가운데 게임사가 아닌 기업이 처음으로 메인 스폰서를 맡은 것도 올해 달라진 모습이 다.

올해 메인 스폰서는 뮌헨테크놀로지스의 인공지능(AI) 콘텐츠 플랫폼 ‘크랙’이 맡았다. 조직위는 게임사와 신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AI와 웹툰, 모빌리티 등으로 행사 영역을 넓히고 자체 콘텐츠도 강화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의 시선이 해외 게임사로 향하고 있다는 점도 지스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글로벌 시장 공략이 중요해지

면서 게임사들이 독일 게임스컴과 일본 도쿄게임쇼(TGS) 등 해외 이용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행사에 신작 공개 역량을 집중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크래프톤 역시 지난달 독일 뮌헨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6’에 참가해 ‘PU BG: 블라인드스팟’을 비롯한 신작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이용자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엔씨소프트와 펠어비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게임스컴에 참가했고, 이달 열리는 TGS에도 국내 게임사들이 잇따라 출격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크래프톤은 지스타 참가를 10년째 이어가며 국내 이용자와의 접점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주요 지식재산(IP)과 개발 중인 신작을 지스타에서 선보이고 게임 시연과 이용자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크래프톤이 합류하면서 지스타의 대형 게임사 공백은 일단 일부 해소됐지만 참가 참가사가 얼마나 뒤따를지가 관건이다. 조직위 역시 지난달 1차 참가사 발표 당시 국내 주요 게임사의 추가 참가가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공개될 라인업에 관심이 쏠린다.

/최빛나 기자

넥슨·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IP 협업 논의

유통·서비스 넘어 협력 관계 확장

넥슨과 블리자드의 협력 관계가 게임 서비스에서 지식재산(IP) 기반 신작 개발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블리자드의 대표 IP인 ‘스타크래프트’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최근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접점을 넓혀왔다. 넥슨은 지난월부터 블리자드의 팀 기반 슈팅 게임 ‘오버워치’의 국내 PC방 서비스를 맡았으며 마케팅과 이용자

대상 행사에서도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스타크래프트 IP를 활용한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양사의 협력 범위는 기존 게임의 유통·서비스를 넘어 신규 게임 콘텐츠 개발까지 확장된다.

스타크래프트는 1998년 출시된 실시간 전략 게임으로 국내 게임 산업에서 상징성이 큰 IP다. 출시 당시 PC방 대중화와 맞물려 흥행했고 이후 프로리그 등 e스포츠 시장이 성장하는 기반이 됐다. 임요환과 홍진호를 비롯한 스타 프로게이머가 등장하면서 게임을 관람하는 e스포츠 문화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빛나 기자

통신 3사, 불꽃축제 앞두고 기지국 총동원

AI가 트래픽 관리, 이동기지국 확대

통신 3사가 여의도 불꽃축제를 앞두고 특별 통신 대책에 돌입한다. 이동기지국과 임시장비를 보강하고 인공지능(AI),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신기술을 동원해 통신 장애 대응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3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과 주요 인파 밀집 지역의 기지국 용량을 확대하고 통신 품질 점검을 마쳤다.

이는 네트워크 과부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불꽃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는 현장 촬영과 소셜 미디어 공유로 인해 데이터 트래픽이 순간 집중된다.

SK텔레콤은 데이터 실측 분석을 통해 여의도한강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특별 대응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여의도 한강공원 크루즈 선착장과 시계탑, 여의나루역 등 주요 지역의 고정 통신시설을 확대했다. 이동기 지국과 전기차 기지국 등 임시 시설도 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 모습.

/서울시

가 배치한다.

KT는 행사장 주변 기지국 용량을 확대하고 이동식 기지국을 추가 배치해 대규모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행사 당일에는 종합 관제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현장 지원 인력도 확대해 네트워크 이상이나 급격한 트래픽 증가 등 특이 사항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무선망 트래픽 수용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이동기지국과 임시 통신장비를 추가 구축하고 무선망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다. 사전 통화 품질 측정과 네트워크 점검도 마쳤다.

/조민선 기자 msjo@

네이버, EBS와 멤버십 ‘교육’ 강화

초중고 EBS 전자책 500종 무제한

네이버가 EBS와 손잡고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디지털 콘텐츠 제휴 영역을 전자책과 교육 콘텐츠로 확대한다.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유료 선택형 디지털 콘텐츠로 EBS가 운영하는 ‘EBS eBook’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EBS eBook은 EBS가 보유한 교육 콘텐츠를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는 구독 서

비스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는 멤버십 전용 혜택가로 해당 서비스를 추가 구매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와 EBS는 이번 제휴를 통해 ‘EBS eBook 초중고 올패스’ 상품을 월 9900원에 제공한다. 기존 EBS eBook은 초등·중학 콘텐츠 약 230종을 월 1만2900원, 중학·고교 콘텐츠 약 340종을 월 1만5900원에 각각 제공하고 있다.

초중고 올패스를 이용하면 동화와 어학

학습서, 수능 교재 등을 비롯해 연계 온라인 강의와 문제은행 등 초·중·고·대학생까지 활용할 수 있는 EBS 전자책 약 500종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현재 월 4900원, 연간 이용권 기준 월 3900원에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PC 게임패스, 네이버웹툰·시리즈 가운데 매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추가 유료 구독 옵션으로는 스포티파이 월 5900원, 웹툰·시리즈 쿠키 월 49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엔 EBS eBook 월 9900원 상품이 새롭게 추가됐다.

/최빛나 기자

국장서 탈출한 개미들, 예금에 1005조 넣고 美 주식 샀다

금투협, 거래대금·개인 순매수 급감
7월 이후 두 달간 예금 56조 증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07조 기록

국내 증시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주식 대신 정기예금과 미국 주식 등으로 눈을 돌리는 ‘국장 이탈’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초 139조원대까지 급증했던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26일 98조9176억원으로 줄어들면서 100조원이 붕괴됐다. 이후 현재까지 90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하반기 들어 코스피는 22.37% 하락했다. 7월 한 달에만 22.19% 빠졌으며, 이후 지난달에도 7000선을 넘기지 못하면서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보였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8월 25조7568억원을 기록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보였다. 직전 달이었던 7월 36조9000억원 대비 약 30% 하락했으며, 50조원대를 유지했던 5·6월과 비교해서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스피 조정이 길어지면서 개인투자자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 조정이 길어지면서 예금과 미국 증시로 이탈하는 개미(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들은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다. 지난 6월 코스피에서만 약 42조원을 순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은 7월 들어 5조3710억원으로 순매수 규모를 줄였으며, 지난 달에도 3조235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재차 고조되고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국내 주식 투자심리는 위축되는 반면, 예금과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은 강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정기예금잔액은 1005조231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에만 약 20조원 이상이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겼다.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던 지난 7월부터 정기예금잔액은 55조8321억원 늘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로 복귀했던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도 다시 집을 싸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미국 주식 66억475만달러(약 8조9800억원)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순매수액을 웃도는 금액이다.

더불어국세청이 집계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가운데 해외주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으며, 이 중 해외주식 신고액은 6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조2000억원(27.4%)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자체도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2024년 6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4조5000억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 107조1000억원까지 늘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올해 신고액 중 해외주식이 차지한 비중은 57.2%였다.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유 규모 역시 커졌다. 개인이 신고한 해외주식 계좌 금액은 지난해 6조9000억원에서 올해 8조2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미국 계좌에 보유한 금액이 7조원으로

전체 개인 해외주식 신고액의 85.3%를 차지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상품은 TIGER 미국S&P500으로 1조346억원이 몰렸다. 이외에도 KODEX 미국나스닥100(6414억원), TIGER 미국나스닥100(5739억원), KODEX 미국S&P500(4572억원) 등 미국 지수 추종 상품이 상위권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 역시 TIGER 미국S&P500(6650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KODEX 미국나스닥100(3964억원), KODEX 미국S&P500(3666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부담과 악화된 투자심리가 주식시장 반등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높은 변동성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괴로움이 시장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엔트로픽 138조 IPO설에도 증권가 ‘신중’

스페이스X 공모주 무산 후폭풍
“상장 후 안전하게 매수” 분위기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엔트로픽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국내 증권·운용업계는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6월 스페이스X IPO 당시 국내 인수단이 공모주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면서 해외 대어에 선제적으로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워졌다는 분위기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 상장신청서 초안을 제출했다. 공식 일정과 공모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9~10월 초 상장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상기업가치는 최대2조달러(약2770조

원), 조달액은 1000억달러(약138조원) 이상으로 스페이스X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체잠재시장(TAM)도 30조달러(약4경1520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엔트로픽 IPO 참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움직임을 찾기 어렵다. 상장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IPO 당시 국내 인수단으로 참여해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에 진행했다. 그러나 미국 대표주관사가 국내 판매 물량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은 한 주도 받지 못했다.

미국 IPO는 국내처럼 청약증거금이나 경쟁률에 따라 물량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다. 발행사와 현지 주관사단이 기관투

자자를 중심으로 최종 물량을 배정한다. 국내 증권사가 인수단에 참여하거나 청약을 받아도 실제 물량 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자산운용업계도 공모주를 사전에 확보하기보다 상장 이후 직접 매수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엔트로픽이 상장되면 AI나 글로벌 기업, 기술주 관련 상품 등 편입할 수 있는 ETF는 많다”면서도 “스페이스X 패처럼 IPO에 참여해 배정받은 물량을 상장과 동시에 편입하는 시도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이스X 패처럼 물량을 받지 못하면 상품 운용과 마케팅 측면에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액티브 ETF는 상장 직후 엔트로픽을 매수할 수 있지만 패시브 ETF는 기초지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 이후 국내 증권사들이 엔트로픽 IPO 물량 확보에 신중해진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모습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CI 각 사

수 편입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다른 자산운용사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종목을 편입하는 액티브 ETF들은 상장 당일 시장에서 매수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내 기업은 비상장 단계에서 엔트로픽 지분을 확보했다.

SK텔레콤은 2023년 1억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약 1339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보유 주식은 386만330주, 장부가액은 3조5050억원이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난 5월 비공개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

SK텔레콤은 통신사 특화 대규모언어모델 개발 등 사업 협력을 전제로 전략적 투자자 지위를 확보했다.

일반투자자도 기존 주주 물량이나 사모펀드·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에 투자할 수 있지만 적격투자자 요건과 최소 투자금액, 기업의 양도 승인 등 제약이 많다.

공모주는 개인이 상장 전 엔트로픽에 접근할 사실상 마지막 통로지만 국내 증권사가 해외 주관사로부터 판매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스페이스X 패처럼 현지 대표주관사가 상장 직전 배정 물량을 전량 철회하면 국내 증권사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이런 선례가 생긴 만큼 엔트로픽 공모주 물량을 증권사 차원에서 확보하려는 시도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리 상승에 ‘저부채 수익성 개선주’ 뜬다

전력기기·방산·IT 등 거론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보험주가 상승세를 탄 가운데 비금융주에서도 차입을 늘리지 않고 수익성을 높이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금리 상승 기대가 주가에 빠르게 반영된 만큼 실제 이익 개선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이날까지 KRX 보험지수와 은행지수는 각각 22.55%, 7.5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내 증시 전반의 흐름을 나타내는 KRX TMI 상승률은 4.99%에 그쳤다.

금융주 강세는 한국은행의 연속 금리인상과 맞물렸다. 한은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올려 연 3.00%로 높였다. 금융위원들의 향후 6개월 금리

전망은 연 3.25%에 가장 많이 몰렸다.

은행은 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될 수 있지만 조달금리와 대손비용도 높아질 수 있어 건전성과 자본비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나금융의 3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을 전년 동기보다 14.9% 늘어난 1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NIM 개선과 약 1500억원의 외화환산이익에 힘입어 보통주자본(CET1)비율도 13.5%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신한투자증권은 4분기 약 3000억원의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을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16만원으로 올렸다.

보험사는 금리 상승으로 신규 채권 수익률과 지급여력비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존 채권의 평가손실 가능성은

부담이다.

비금융주에서는 차입을 늘리지 않고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가지본이익률(ROE)을 높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차입으로 ROE를 높인 기업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지만 재무레버리지를 낮추면서 ROA를 개선한 기업은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 금리인상기에 재무레버리지를 낮추면서 ROA 개선으로 ROE를 높인 업종의 주가 성과가 양호했다고 분석했다. 전력기기와 방산, IT하드웨어, 화장품, 제약·바이오 등이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의 ROA는 올해 10.1%에서 내년 15.7%, ROE는 14.9%에서 23.3%로 상승할 전망이다. LS일렉트릭도 ROA가 9.9%에서 12.3%, ROE는 23.7%에서 28.0%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허정윤 기자

밸류업 공시 756곳… 시총 83%가 참여

거래소,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잇따라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을 공시한 상장사가 756곳으로 늘어나면서 공시 기업의 시가총액이 전체 증시의 83%를 넘어섰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기주식 취득·소각과 배당 확대가 이어지는 등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2026년 8월)’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는 총 756곳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354곳, 코스닥 402곳이다.

공시 기업의 시가총액은 5074조원으로 전체 증시의 83.4%를 차지했으며, 코스피

에서는 그 비중이 87.7%에 달했다.

지난달 카카오·대원강업 등 9곳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새로 공시했으며, 이행 현황 공시는 11곳이 제출해 누적 124곳으로 늘었다.

주주환원 움직임도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40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결정했고, 삼성전자는 3분기 30조원 현금배당을 포함해 최대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자기주식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이 잇따르면서 밸류업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에도 속도가 붙는 흐름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지난달 말 3240.84로 지난해 말보다 80.3% 올라 코스피 상승률(61.8%)을 18.5%포인트 웃돌았다.

/신하은 기자

정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재개 주말·공휴일 낮시간 최대 32% ↓

기후부, 이번 주말부터 할인 적용
낮 11시부터 14시까지… 총 21일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자료 활용

올해 가을철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면 요금을 최대 32%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5일 ~ 10월 31일까지 주말·공휴일 총 21일간, 낮 11시부터 14시까지 3시간 동안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 공급이 여유로운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유도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할인 정책은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자카소비요금’과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요금’에 모두 적용된다. 주택이나 회사 등에 설치된 자카소비용 충전소는 전력량 요금의 50%가 할인돼 킬로와트시(kWh)당 40.1원~48.6원의 할인 혜택을 즉시 받게 된다.

특히 기후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9600여 기는 한전의 전력량 요금 할인(50%)에 자체 할인을 추가해 전체 충전요금을 최대 32%(kWh당 85.4~97.2원)까지 할인한다. 기후부는 앞서 올해 4월 18일 ~ 5월 31일까지 봄철 주말 공휴일 낮 같은 시간대 전기차 공공충전요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차 충전요금 가을철 주말·공휴일 낮시간대 할인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 할인을 첫 시행한 바 있다.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이 50% 만큼 할인됨에 따라 소비자용 충전요금은 최대 15%까지 할인됐고, 할인 이전 대비 일평균 약 9.2% 사용 건수가 증가했다. 이번 가을철 할인은 봄철 대비 할인 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가격변화에 따른 충전 수요이동을 분석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한전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충전기 역시 약 11%~17%의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민간 충전 인프라로의 확산도 눈에 띈다. 에버온, 채비, SK일렉트릭, 현대엔지니어링, LG유플러스볼트업 등 19개 민간 충전사업자도 이번 할인 정책에 동참한다. 민간 업체들은 요금 직접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봄·가을철 할인 시행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내년 도입을 검토 중인 전기차 충전요금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봄철 시행에서 확인한 성과를 가을철에는 한층 확대하고자 하며, 다수의 민간업체까지 함께해 이용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가을철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 도입을 검토 중인 계시별 충전요금제가 이용자 편의와 전력망 안정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동서발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박차

권명호 사장 등 경영진 예정부지 방문

한국동서발전이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1000메가와트(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권명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1000MW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예정부지를 방문해 전력 공급 계획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산단에 대규모 전력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전력계통 연계·용수 공급·부지 여건 등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팹·Fab)이 들어서는 핵심 거점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확보가 산단 성공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특히 동서발전이 추진하는 복합발전소는 국가산단 내 조성 예정인 총 3기와 트(GW) 규모의 발전단지 중 가장 먼저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복합화력 발전소’ 예정부지에 방문해 계통, 시설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동서발전

건설되는 첫 번째 발전소다. 향후 구축될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에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전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권명호 사장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주요 기반시설 추진 상황과 향후 건설 공정을 집중 점검했다.

권 사장은 “용인 복합발전소 건설은 단순한 발전설비 확충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에너지 전환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마사회, ‘렛츠런파크’ 인기 콘텐츠 재개

어린이 승마전동차 등 운영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가 가을을 맞아 가족단위 방문객 대상의 인기 콘텐츠 운영을 재개한다.

3일 마사회에 따르면 ‘어린이 승마전동차’는 방문객의 높은 호응 속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조회수 124만을 기록했다. ‘새 단장 후 이달 5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이는 페달을 밟으면 상하로 움직이며, 실제 승마와 유사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다. 만 6세 이상은 단독 탑승, 만 6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현장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또 ‘포니 운동회’는 포니들의 귀여운

모습과 아기자기한 재능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참여형 공연 콘텐츠다. 올가을부터는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퀴즈 프로그램이 추가된다.

공연은 9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엔 정오와 오후 3시 20분에, 일요일엔 오후 12시 30분과 3시 등 하루 2회씩 진행된다.

포니랜드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영화 ‘오디세이’ 속 트로이목마도 관람할 수 있다. 세로 6m 규모의 대형 트로이목마는 관람뿐만 아니라 내부를 돌아다닐 수도 있는 체험형 구조물이다. 방문객들에게 오디세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체험을 선사한다.

운영 일정과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송미령 “공동영농법인 보조사업 예산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 장관, 공동영농법인·기업 간담회
“전문 교육과정·맞춤형 컨설팅 운영”

공동영농 지원을 위한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공동영농법인 활성화가 인구절벽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경북 구미 도개면의 한 영농조합법인을 찾아, 공동영농 필지를 살핀 뒤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장에서는 밀 제분 공장을 견학하고 공동영농법인·지역사회 소비기업과 간담회도 가졌다.

송 장관은 “내년 공동영농확산지원 보조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할 계획”이라며 “이는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농촌의 차세대 생산 주체로서 공동영농법인을

전면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개소 수를 확대하고 법인의 경영역량 증진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되, 규모화 추진을 위해 기준 면적을 상향(20헥타르·ha→50ha)한다. 또 농지 연결 수준(농지와 맞닿아 있는 시설 혹은 행정구역상 경계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도 높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농가제 공동구입 및 농작업 대행 중심의 공동영농에서, 공동영농법인의 ‘전문경영’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농지 집적 ▲소득 극대화를 위한 이모작 ▲품질 고급화 ▲수익 공유를 실현하는 공동영농 등으로의 진화를

추진한다.

송 장관은 이날 187ha에 달하는 영농면적의 일부를 둘러보고 농지 집적 방식, 작목반 주도의 공동농작업 현황, 개별 영농 대비 생산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송 장관은 생산한 밀을 자체 제분하는 가공공장도 찾았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밀가루는 지역 내 소비기업(베이커리·식당 등)의 수요까지 반영했다. 지역 베이커리가 이 밀가루로 우리밀 빵을 제작하는 등 지역 내 생산-소비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자산지소’(지역 내 생산 지역 내 소비)를 실천하는 우수 모델”이라며 격려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무보, 코스맥스 美 법인 5000만 달러 지원

국내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글로벌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생산(ODM) 1위 기업인 코스맥스의 미국 법인에 5000만 달러(약 67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 급부상한 K-뷰티의 위상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북미 시장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코스맥스 미국법인은 신규 고객사 유입과 기존 거래처의 주문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급증하는 현지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운전자금 확보가 절실했던 만큼, 이번 무보의 금융지원이 북미 시장 내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보는 K-뷰티와 K-콘텐츠 등 ‘K-

컬처’ 열풍을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소비재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을 포함해 무보가 올해 K-컬처 기업의 해외법인에 제공한 금융 지원 규모는 총 2억 달러를 넘어섰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K-컬처가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금융 공급이 필수”이라며 “K-컬처 선도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대폭 해소

공정위 소유·지배 괴리 구조는 여전

국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폭 해소되는 등 출자구조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단 3.5%의 직접 지분만으로 계열사 등을 동원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지배 괴리’ 구조는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89개 총수 있는 집단, 3293개 소속회사)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 개선 노력에 눈에 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233개로 전년(1435개) 대비 1202개(83.8%)나 급감했다. 태광과 KG이 기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했고, 지난해 1426개의 고리를 가졌던 사조는 이를 220개로 대폭 축소했다.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시주보유처분에 대한 시장 감사가 강화되면서, 대기업

소속 회사의 평균 자기주식 비중(1.9%)도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착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집계됐다.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에 불과했지만, 계열회사(55.5%)와 임원·비영리법인 등의 지분을 끌어모아 60%가 넘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총수 지분율은 일진글로벌(51.4%), 대명화학(26.4%), 부영(23.1%) 순으로 높았으며, 총수 2세 지분율은 넥슨(65.1%), 한국엔컴퍼니그룹(19.6%) 순이었다.

경영권 승계나 편법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자원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졌거나, 해당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 1047개사로 전년보다 89개사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지우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NOL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지거국 인기 다시 치솟는다… 등록금 무상화 기대감 ‘톡톡’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정시 5.68대 1 경쟁률 5년 최고
수시 지원 28만명 넘어 5년 최대
인문·자연 내신 합격선 동반 상승
취업난·진학비 부담에 선택 변화
‘서울대 10개’도 2027 입시 변수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지거국)의 경쟁률과 합격선이 동반 상승하며 입시 지형에 변화 기류가 감돌고 있다. 취업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 정책이 새 변수로 떠오르면서 2027학년도 지원 양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9개 지거국(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의 2026학년도 정시 평균 경쟁률은 5.68대 1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지거국 정시 경쟁률은 ▲2022학년도 ‘4.67대 1’ ▲2023학년도 ‘4.69대 1’ ▲2024학년도 ‘4.58대 1’ ▲2025학년도 ‘4.88대 1’로 등락을 거듭하다 2026학년도 ‘5.68대 1’로 상승했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9개 지거국의 2026학년도 정시 평균 경쟁률은 5.68대 1로 나타났다. /뉴스1

특히 정시 모집인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원자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은 1만4167명에서 2026학년도 1만195명으로 줄었다. 반면 지원 인원은 2025학년도 5만5863명에서 2026학년도 5만7883명으로 2020명 늘었다.

2026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8.65대 1’

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22학년도 ‘8.92대 1’ 수시 경쟁률은 ▲2023학년도 ‘8.38대 1’ ▲2024학년도 ‘7.69대 1’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5학년도 ‘8.44대 1’ ▲2026학년도 ‘8.65대 1’로 2년 연속 올랐다.

수시 지원 인원은 2026학년도 28만252

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2024학년도 23만4825명에서 2025학년도 26만7624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지원자가 늘면서 내신 합격선도 높아졌다. 일반전형 최종등록자 70%컷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 평균 합격선은 ‘3.69등급’으로 집계됐다. ▲2022학년도 ‘3.75등급’ ▲2023학년도 ‘3.71등급’ ▲2024학년도 ‘3.91등급’ ▲2025학년도 ‘3.88등급’를 지나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연계 합격선은 ▲2022학년도 ‘3.80등급’ ▲2023학년도 ‘3.82등급’ ▲2024학년도 ‘3.86등급’으로 3년 연속 하락했지만, ▲2025학년도 ‘3.76등급’ ▲2026학년도에는 ‘3.58등급’으로 반등했다.

종로학원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 취업난을 경쟁률·합격선 동반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무리하게 기회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수도권 진입을 고수하던 입시 흐름이 일정 부분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권 대학과 지거국 합격선이 겹치는 수험생층에서 지거국을 선택하는 경향이 예전보다 뚜렷해졌다는 설명도 나온다.

교육부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도 이런 흐름을 가속화할 변수로 지목했다. 종로학원은 정책이 본격화하면 지방권 학생들이 지거국, 국립대, 사립대 중 지거국으로 쏠리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지역 내 지거국과 국립대를 놓고 고민하는 수험생들 역시 지거국 선호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와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따른 지원 대상 대학 선정도 수험생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특히 부산대·충남대·전남대 등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거국을 중심으로 지원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올해 수시가 향후 지거국 선호도 변화와 합격선 상승 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학폭 ‘처벌’보다 관계회복… 대화로 갈등 푼다

서울시교육청, 학폭 관계조정 확대
변호사 선임 사안도 대화로 조정
처벌보다 예방·관계회복에 무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이 모두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와 처벌 대신 대화를 통한 관계조정으로 해결되면서, 학교폭력 대응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교육 현장의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북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당사자 간 대화와 소통을 중재하는 ‘북부 마음이음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음이음 관계조정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건을 처벌 중심으로 처리하는 데서 벗어나 예방과 관계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관계조정 지원단이 현장에 투입돼 피해·가해 관련 학생이 서로의 입장을 듣고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한다.

최근 프로그램이 적용된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였지만, 관계조정 지원단의 중재를 거쳐 당사자 간 관계조정이 성사됐다. 참여 학생은 사후 만족도 조사에서 “상대 친구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게 되어 정말 좋았고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밝혔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약 70건의 관계조정을 진행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들 사안들은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취소로 이어졌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사안발생 이후의 조

정뿐 아니라 교실 내 초기 갈등 단계에서부터 관계조정이 가능하도록 교원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총 15시간 과정의 ‘2026 북부 교실 속 관계조정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지난 8월 자체 개발한 ‘북부 교실 속 관계조정 매뉴얼’을 활용해 공감적 경청과 사전·본 대화모임 실습, 약속이행문 작성 등 현장 중심으로 진행한다.

정동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최근 늘어나는 학생 간 갈등 사안은 심의에 의한 처벌보다 관계의 회복과 마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마음이음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평화롭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용산고 80주년 음악회 동문·재학생 한무대

매년 후배 110여명 장학금 지원

100억원 규모의 장학금금을 조성해 매년 후배 110여명을 지원해 온 용산고 동문들이 개교 80주년을 맞아 재학생·교직원과 한 무대에 선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용산고등학교는 오는 9일 오후 7시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교 8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음악회에는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을 비롯해 서울교육가족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다. 개교 80주년을 기념하고 학교 구성원과 동문 간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용산고 동창회는 100억원 규모의 장학금금을 바탕으로 매년 재학생 11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숙생활관 운영비와 교육활동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최근 용산 신청사로 이전한 서울시교육청 구성원들도 함께한다. 특히 신청사 부지에 있었던 옛 수도여고의 역사를 기념해 수도여고 동문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출연진은 용산고 동문합창단과 산울림 멤버 김창훈, 강승원 KBS 음악감독, 성악가 정효식·최승원 등이다. 용산고 학생회와 교사, 서울 음악교사들도 공연에 참여한다. 진행은 김재원 전 KBS 아나운서가 맡는다.

김진효 용산고 교장은 “졸업 후에도 모교와 후배들의 성장을 꾸준히 지원해 온 동문들의 역할이 큰 힘이 돼 왔다”며 “선배의 지원이 후배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후배들이 다시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전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킨텍스, MICE 업계 최초 ‘AI 안전관리 인증’ 획득

AI·IoT 기반 위험요인 실시간 감지
전기차 화재·공간안전 기술도 실증

킨텍스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를 인정받아 마이스(MICE) 업계 최초로 도시재생안전협회의 ‘AI 안전관리 인증’을 획득했다.

킨텍스는 2일 AI 기반 시설·현장 안전관리와 위험요인 사전 감지, 재난·사고 대응체계 등을 평가받아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AI 안전 인증’은 도시재생안전협회가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과 사고 예방 활동, 위험요인 대응 능력, 지속적인 개선체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킨텍스가 이번 평가에서 AI 기반 시설·현장 안전관리와 위험요인 사전 감지·예방체계, 재난·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지속적인 안전관리 개선 활동



이민우(왼쪽) 킨텍스 대표이사와 도시재생안전협회 오세기 부회장.

등을 평가받았다.

현재 킨텍스는 지능형 CCTV와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센서를 연계해 화재와 군중 밀집 등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작업을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국책과제 테스트베드로도 참여해 전기차 화재감지 솔루션과 엣지(Edge) A

I 공간안전 플랫폼, 마킹 로봇 등을 실증·도입했다.

킨텍스는 앞으로 안전관리 과정에서 축적한 빅데이터와 AI를 연계해 위험 감지와 사고 대응,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은 킨텍스가 지난달 발표한 ‘AI HYPER MICE HUB, KINTEX’ 비전 가운데 안전 분야에서 나온 첫 성과다. 킨텍스는 안전과 운영 효율, 고객 경험, 조직문화, 비즈니스 생태계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15대 AI 전환(AX)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킨텍스 중역회의실에서는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와 오세기 도시재생안전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도 열렸다. 양측은 MICE 산업의 스마트 안전관리 적용 확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광(경기)=안봉기 기자 ask@9900

송도·영종·청라 잇는 ‘I♥FEsta’ 열린다

송도 12일 시작 영종·청라로 이어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 K-컬처 브랜드 강화를 위해 12일 송도로 시작 10월 10일 영종, 10월 24일 청라로 축제를 통합한 총 3개의 에피소드로 ‘I♥FEsta’를 개최한다.

9월 12일 송도 센트럴파크에서는 클래식과 국악이 어우러진 크로스오버 공연과 ‘K-Fashion’ 특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10월 10일 영종 씨사이드파크 ‘K-BEAT’영종국제도시에서는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에너지탄 락 음악과 국악의 역동적인 크로스오버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현장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Food’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이어 10월 24일 청라 호수공원 ‘K-OST’축제의 파날레는 지역 대표 축제인 ‘청라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축제의 풍성함을 더한다. 현장에서는 와인

시음 및 소믈리에 강연 등 트렌디한 와인 콘텐츠와의 페어링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가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3개 도시 축제를 유기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I♥FEsta 모바일 PASS’를 운영하여 방문객 유입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며 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관광공사 누리집 및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은 “2026 IFEZ 글로벌 페스티벌”은 송도, 영종, 청라가 가진 각기 다른 매력을 ‘I♥FEsta’라는 하나의 브랜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반면 지역 간 차별성도 함께 보여주는 뜻깊은 시도라며, “K-컬처를 매개로 전 세계 관람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는 대표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백종원 대표 “먹거리는 시작… 지역에 맞는 성공모델 마련”

Q 르포 |

더본코리아 ESG 상생 프로젝트

백 대표, 예산시장서 미디어 간담회
지역개발 방향 등 비전·전략 공유
자생력 강조… “사람과 공간 연결”

“지역개발은 포도 스팟 몇 곳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하루를 보내고, 다시 오고 싶어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2일 충남 예산시장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ESG 상생프로젝트 예산지역개발 미디어 간담회’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역개발의 방향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단순히 시장에 사람을 불러오는 것을 넘어 지역의 맛과 이야기, 사람과 공간을 연결해 지역 자체가 관광지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1000만명 찾은 예산시장… 흥행 이면엔 어려움도

예산시장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다. 2023년 1월 첫 개장 이후 연간 약 370만명이 시장을 찾았고, 2024년에는 약 400만명이 방문했다. 올해 5월에는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방문객이 10여명에 불과했던 전통시장이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변한 셈이다.

하지만 백 대표가 이날 가장 강조한 단어는 ‘성공’보다 ‘자생력’이었다.

전체 매장의 자생력을 묻는 질문에 그는 “전체로 본다면 50%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함께한 핵심 5개 매장에 대해서는 “자생력이 80~90% 정도 됐다고 봐도 된다”고 평가했지만, 이후 시장에 들어온 점포들은 아직 충분한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지난 2일 예산 지역 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예산시장 흥행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시장 활성화 이후 각종 민원과 신고가 이어지며 어려움을 겪은 것. 전통시장 내 좌판과 가스통 사용 문제 등으로 군청 민원, 경찰 신고, 국민신문고 접수 등이 이어졌다. 이에 지역 공무원들과 회사 관계자들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결과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수가 급감했다.

이날 백 대표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방문객들이 줄었지만, 다시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예산 지역민이 7만~8만명인데 올해에만 140만명이 시장에 왔다. 연말이면 250만명을 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 활기 찾은 시장… 입지 따라 온도차
간담회가 끝난 뒤 시장을 둘러보자 백



예산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손님들.

/신원선 기자

대표가 말한 ‘방문 이유’가 눈앞에 펼쳐졌다. 시장 곳곳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가 판매되고 있었고, 점포 앞에는 음식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이 이어졌다. 주말 시장을 찾은 가족 단위 고객들도 눈에 띄었다.

더본코리아는 예산의 쪽파, 사과, 파리고추, 지역 축산물 등을 활용해 파기름비빔국수, 사과 닭구이, 파리고추닭볶음 등을 개발했다.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시장 방문을 관광 콘텐츠로 연결한 것이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새롭게 단장한 점포와 기존 상점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더본코리아는 기존·신규 상인 32개 점포를 대상으로 메뉴 컨설팅과 레시피 개발, 위생교육, 외관 개선 등을 지원했다. 오일장에서 영업하던 상인을 시장 안으로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상인들의 정착도 도왔다.

다만 시장 전체가 똑같은 속도로 성장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입점한 에당타르트사장은 시장의 변화를 체감하면서도 자신의 점포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메뉴 컨설팅을 받고 들어왔어요. 전에 운영하시던 사장님들은 빛을 봤지만, 우리는 아직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곧 사람들이 많이 와서 빛을 볼 수 있겠죠.”

그가 꼽은 가장 큰 변수는 입지였다. “입지에 따라서도 격차가 크다”며 “외곽 끝 쪽은 손님들이 그냥 지나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덧붙였다.

더본코리아의 관리 방식에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판매 메뉴는 더본코리아에서 배워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받고 있다. 새로운 메뉴를 판매하고 싶을 때도 더본코리아와 상의해 결정한다. 인점 점포와 메뉴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점도 특징이다. 그

는 “더본코리아에 바라는 점은 없다”며 “지금처럼만 관리·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다음 과제, 스스로 성장하는 시장 구조 확립

예산시장 프로젝트가 ‘먹거리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백 대표는 먹거리가 지역을 알리는 가장 빠른 콘텐츠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푸드코트처럼 만드는 것이 목표는 아니라고 했다.

시장 사이사이에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좌판을 만들고, 신발가게와 내복가게 등 기존 상점과도 협업해 먹거리 외 업종으로 소비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장 하나를 넘어 예산 전체를 연결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출렁다리와 전통주 단지 등 주변 관광자원까지 연결하면 시장 방문이 지역 전체의 관광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본코리아는 삼교시장 곱창특화거리, 전통주 체험단지, 충남방직 유희공간 활용 등 예산 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강진·상주·군산 등 다른 지역으로 사업 영역도 넓히고 있다. 다만 백 대표는 예산시장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마다 특산물과 관광자원, 상권의 특성이 다른 만큼 각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예산시장의 다음 과제는 더본코리아의 지원 없이도 상인들이 손님을 불러모으고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67개 핵심점포 역량집중… 2029년 흑자 목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업 회생 경제적 타당성 인정받아
중장기 정상화 핵심요소 ‘자산 매각’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하면서 홈플러스가 청산 위기를 벗어났다. 조사위원의 분석 결과 기업을 즉각 해체해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때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회생의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이행 단계에 들어섰으나, 자산 매각과 본업 경쟁력 회복 여부가 향후 회생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전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집회 표결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주주 100%, 회생채권자 76%의 찬성표를 얻으며 가결 요건을 크게 웃돌았고,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도 동의했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상 인가 요건을 고루 구비했다고 판단하며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힘을 모아 성실히 계획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가된 계획안에 따라 홈플러스는 인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메리츠증권·메리츠



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뉴스시

화재·메리츠캐피탈의 담보신탁채권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초기 변제와 영업 정상화에는 지난 6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확보한 1206억원과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조달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등이 활용된다. 이후 선·후순위 신탁담보채권은 점포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고, 일반 회생채권은 5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분할 변제한다.

중장기 정상화의 핵심은 자산 매각이다. 홈플러스는 2028년 2월까지 비수도권 12곳을 포함한 자가 점포 19곳을 순차 매각해 총 1조 4192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적자 점포를 정리해 인건비와 임대료를 대폭 줄이고 67개 핵심 점포에 역량을 집중해 2029년 흑자 전환, 2030년 경영 정상화를 달성한다는 목

표다.

점포 매각으로 메리츠금융의 담보권을 풀 뒤에는 남은 67개 운영 점포 중 자가 점포 38곳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조달해 공익채권 변제 등에 투입한다. 다만 지방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지연될 경우 유동성 부족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계획대로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노동계와 정치권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당, 사회민주당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알자리, 입점 소상공인들의 생계, 협력업체와 그 노동자들, 지역 경제까지 생각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신세계푸드, 모바일 선물시장 매출 급증

프리미엄 디저트 등 제품군 확대

신세계푸드의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베기아에누보’가 모바일 선물하기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올해 상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한 베기아에누보 냉동 케이크·디저트 제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대표 제품인 ‘베기아에누보 시그니처 스노우 치즈케이크’도 판매량이 늘었다. 지난해 판매량은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신세계푸드는 모바일 선물하기가 생일이나 기념일 등 특정 시점에 이용하는 서브에서 감사와 응원, 인부 등을 전하는

일상적인 소비 채널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성장 배경으로 꼽았다. 타인에게 선물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을 위한 ‘셀프 기프팅’이나 쇼핑 목적으로 모바일 선물하기를 이용하는 소비지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세계푸드는 모바일 선물 수요에 맞춰 제품군도 확대하고 있다. 기존 냉동 케이크 중심에서 롤케이크, 파운드케이크, 쿠키, 커피 등으로 판매 품목을 넓혔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시그니처 스노우 치즈케이크’, ‘파베 초콜렛 생크림 케이크’, ‘레어 프로마주 케이크’ 등을 판매하고 있다. ‘망드샤 쿠키’, ‘망고요거트 롤케이크’, ‘제주녹차초코 파운드’ 등도 선물용 제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일동후디스, ‘2026 한국웰니스지수’ 2관왕

일동후디스의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하이문)’와 ‘후디스 산양유아식’이 한국 표준협회가 주최한 ‘2026 한국웰니스지수’에서 각각 단백질 보충제와 산양분유·산양유아식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하이문은 단백질 보충제 부문에서 6년 연속, 후디스 산양유아식은 산양분유·산양유아식 부문에서 19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한국웰니스지수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

해 제품과 서비스의 웰니스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건강성·환경성·안전성·총족성·사회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이문은 일동후디스의 영양·기능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0년 출시된 단백질 전문 브랜드다. 후디스 산양유아식은 뉴질랜드산 산양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아식 브랜드로 2003년 출시됐다.

/신원선 기자

투썸, 美 본토 시장 공략 나선다… ‘K-페어링’ 앞세워 승부수

내달 알렉산드리아 美 1호점 개점
디저트 등 결합 ‘K-페어링’ 전면
DMV 권역 직영점 10곳 이상 확대
스초생·달고나 등 현지화 메뉴 80종
美 안착 뒤 일본 등 해외 진출 검토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독자적인 ‘커피&디저트 페어링’ 문화를 앞세워 세계 최대 F&B 시장인 미국에 도전장을 내민다.

투썸플레이스는 3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올드타운 킹 스트리트(King Street)에 미국 1호점을 개점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 진출을 시작으로 DMV(워싱턴 D.C.·메릴랜드·버지니아) 권역을 중심으로 현지 소비자의 일상에 침투하는 ‘메인스트림(Mainstream)’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영진은 글로벌 카페 브랜드가 즐비한 미국 시장을 첫 해외 거점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미국은 글로벌 최대 F&B 시장



투썸플레이스 미국 진출 발표 미디어 간담회 김신영 총괄 부사장.

인 만큼, 이곳에서의 성공이 향후 타 국가 진출 및 글로벌 확장(Multi-Nation)에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현지 카페 시장에서 커피와 완성도 높은 디저트를 함께 즐기는 ‘페어링’ 영역이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 시장에서 커피는 일상적인 ‘Grab & Go’ 소비 방식이 강한 반면, 케이크는 생일이나 파티 등 특별한 날에 주문하는 제

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투썸플레이스는 이 두 소비 패턴 사이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한 공간에서 즐기는 ‘K-페어링(K-Pairing)’ 문화를 이식한다는 전략이다.

현지 매장의 차별점도 명확히 했다. 현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올데이 카페(All-day Cafe)’ 개념을 도입해 오전 5~6시 조기 오픈을 추진하며, 식사 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델리 메뉴를 대

폭 강화한다. 또한 매장 입구에는 목재로 디자인된 디저트 쇼케이스를 전면 배치해 사전 주문 없이도 현장에서 시각적인 만족감을 얻고 다양한 케이크를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미국 1호점에서는 국내 베스트셀러인 ‘스초생(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과 ‘떠먹는 아바(아이스박스)’ 등 대표 시그니처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흑임자·인절미·달고나 등 한국적 식재료를 재해석한 K-케이크와 달고나 크림탑, 미숫가루 프라페, 불고기 비빔볼, K-토스트 등 현지화된 80여 종의 라인업을 운영한다.

미국 판매 가격은 지역별·상권별 특성을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다. 현지 물가와 인근 점포 수준, 직접 소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내 대비 약 10~20% 가량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디저트 품목의 수익성에 대해 회사 측은 마진을 자체는 커피가 높지만, 케이크는 객단가가 높아 절대적인 수익 금액 측면에서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투썸플레이스는 초기 브랜드 정착과 품질 관리를 위해 가맹이 아닌 현지 법인의 직영 운영 방식을 택했다. 초기 투자 규모

는 대외적으로 구체적 수치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매장 1곳당 오픈 비용으로 약 15억~2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사 측은 알렉산드리아 1호점을 시작으로 DMV 권역 내 10개 이상의 직영 매장을 연이어 선보이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미국 메이저 브랜드로 정착시킨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가맹 사업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외 타 국가 진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기타 지역은 시장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시장의 경우 매장 수 확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일 매장 매출 향상과 디저트 강화 및 메뉴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이사는 “투썸이 국내에서 쌓아온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갈 때”라며 “오는 10월 알렉산드리아 1호점을 시작으로 투썸플레이스의 새로운 글로벌 여정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응급환자 살린 골든타임 ‘지역 완결형 의료’가 해답

한림의료원, 심근경색 후유증 없이 회복
응급실 도착 90분 내 혈관 재개통 중요
치료 지연 땀 뇌손상·다장기부전 위험

“회사에서 일하다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119를 불렀습니다. 신고 8분 만에 구급대가 왔고 심정지가 와서 제세동기를 대며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배우자와 초등학교 자녀 둘을 둔 42세 남성 A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쓰러졌다. 구급대의 현장 응급처치가 이뤄졌고 20분 만에 한림대학교 교동탄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어 즉각적인 관상동맥 재개통 시술(PCI)이 진행됐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3일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끝에 의식을 찾았고 후유증 없이 퇴원했다.

3일 한림대학교 의료원이 질병관리청

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개최한 미디어데이에서 공개한 이 사례는 심혈관 질환 대응에서 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가 생사 및 예후를 가르는 핵심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심근경색, 심정지, 급성 대동맥질환 등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비가역적인 장기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심근경색은 응급실 도착 후 90분 이내에 혈관을 열어야 하며 대동맥박리는 치료가 지연될수록 사망률이 시간당 1%씩 급증한다.

이날 발표를 맡은 순환기내과 최재혁 교수는 “앞선 42세 환자는 혈압이 유지돼 시술로 끝났지만, 만약 혈압이 떨어지거나 다시 심정지가 왔다면 뇌 손상이나 다장기 부전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LG유니참, 성인용 기저귀 ‘라이프리’ 재단장

일반·장시간용으로 선택 폭 확대

LG유니참이 팬티형 성인용 기저귀 ‘라이프리’를 재단장해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일반용과 장시간용으로 구성해 상황에 맞춰 선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용 흡수량은 920ml 수준이다. 일상적인 활동 중 발생하는 요실금에 안정적인 대응할 수 있다.

장시간용은 역대 자사 출시 성인용 기저귀 가운데 최대 흡수량을 갖춘 1350ml 제품이다. 일반용 대비 1.5배 높은 흡수량으로 오랜 시간 착용하거나 바로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하면 된다.

또 옆 샘 방지막을 달아 활동 중 옆으로 새는 것을 한 번 더 막아 준다. 소취 기능도 더해 장시간 착용 시에도 쾌적함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착용감도 강화했다. 라이프리 안심흡수언더웨어는 기존 제품 대비 2배로 늘어나는 신축 허리밴드와 소재를



성인용 기저귀 ‘안심흡수언더웨어’ /LG유니참

적용해 속옷처럼 쉽게 올리고 내리는 형태로 설계했다.

LG유니참은 이러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국내 고령화 관리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브랜드 대표 제품 ‘안심흡수언더웨어 장시간용’은 실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출시 첫 해인 2023년 월 평균 매출 대비 2026년 1~7월 월 평균 매출은 3년만에 약 60% 증가했다.

/이청하 기자

한섬 ‘시스템 파리’ 英 진출 해리즈 팝업스토어 운영

한섬은 자사 브랜드 ‘시스템 파리’가 영국 런던 해리즈 백화점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글로벌 유통망 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한섬은 이달 7일(현지시간)부터 11월까지 해리즈 2층 남성관 내 ‘컨템포러리 컬렉션’ 조닝에서 시스템 파리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시스템 파리는 시스템·시스템웜프가 2019년부터 파리패션위크에서 선보여 온 글로벌 컬렉션을 지난해 독립 브랜드로 격상한 브랜드다. 한섬은 올해 초 프랑스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에 시스템 파리 정규 매장을 연 데 이어 영국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영국 런던 해리즈 백화점 전경. /현대백화점그룹

동아제약, 기미·주근깨 완화 ‘화이트타민정’

아일로 이너뷰티 신제품 선택

동아제약은 이너뷰티 브랜드 ‘아일로’ 신제품으로 기미와 주근깨 완화를 위한 ‘화이트타민정’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의약품으로 비타민, 미네랄 등을 함유한다. 1정에 비타민C 500mg, L시스테인 120mg 등을 비롯해 비타민 B군, 비타민E, 아연 등 총 12종의 유효성분을 담았다. 육체피로는 물론 임신·수유기 또는 병중·병후의 체력저하 시 비타민과 미아연을 보충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최근 이너뷰티 제품을 선택할 때 검증된 효능과 신뢰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제약사의 전문성이 뷰티·헬스 시장에서도



아일로 ‘화이트타민정’

/동아제약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화이트타민정을 시작으로 동아제약의 전문성을 접목한 신뢰도 높은 제품을 확대해 아일로만의 차별화된 스킨 솔루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웰빙, 지방분해 주사제 개발 속도

中 임상3상서 유효성·안전성 확인

GC녹십자웰빙이 차세대 지방분해 주사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미용 의료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다.

GC녹십자웰빙은 파르나사 라지엘 테라퓨틱스가 ‘RZL-012’ 중국 임상3상에서 주요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지표를 충족하는 톱라인 결과를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임상은 성인 이중턱 환자 4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중추적 등록 시험이다.

RZL-012는 단 1회 투여 후 84일 시점에 위약군 대비 30%포인트 이상의 반응

률 차이를 나타내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RZL-012는 표적 지방세포를 비가역적으로 사멸시키는 차별화된 기전을 갖췄다. 기존 지방분해 시술 대비 적은 투여 횟수(1~2회)로 국소 부위 지방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GC녹십자웰빙은 RZL-012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라지엘에 대한 전략적 지분 투자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품목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차바이오텍

CGT 분석기술 국산화

차바이오텍이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석 기술을 국산화하고 공공 품질평가를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품질평가 기술개발 플랫폼(K-CGTAP)’을 구축하고 공공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미래AX공학관, 연구 혁신의 시작이 되다

미래 AX 공학관에서 펼쳐질 초격차 연구 혁신,
중앙대학교는 인류의 내일을 바꿀 '메타 밸류(Meta-Value)'를 창출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첨단 교육 플랫폼과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당신의 위대한 첫걸음을 지원합니다.

■ 지식 창출로 미래를 선도

- 2026학년도 상반기 정부재정지원사업 1,927억 수주
- BK21사업 18개, 선도연구센터[ERC, SRC] 5개, ICT연구센터 4개, 중점연구소 2개 유치

■ 첨단기술 기반 학생 성장 지원

- 교육부 첨단분야 정원 증원 승인 학과
(일반대학원 - AI학과/융합보안학과 등 10개 학과, 첨단영상대학원 - 메타버스융합학과)
- 창의ICT공과대학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신설

■ AX(AI 전환)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 생태계

- 반도체 클린룸과 GPU 서버실을 갖춘 '미래 AX 공학관' 건립
- 사람·학문·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집단 융합 연구 공유 플랫폼' 구축



미래 AX 공학관 착공(2026)



1.2만곳 협력사 품었다… 농어촌공사, 인권경영 ‘대상’

맞춤형 인권경영 전략 추진
협력사 행동규범 마련하고
ESG·인권경영 교육 등 진행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회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공급망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3일 공사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은 인권경영 체계와 성과,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농어촌공사는 각 협력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를 받았다. 공사의 협력사 1만 2000여 곳 중 93%가 중소기업이며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지를 둔 곳이 79%에 달한다. 또 전체 계약 가운데 건설공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인권경영을 위한 3대 전략을 마련했다. ▲협력사 인권경영 역량 강화 ▲현장 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소재 농어촌공사

약근로자 인권·안전 보호 ▲정보격차 해소 소통창구 운영이다.

우선 협력사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기준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KRC(한국농어촌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의 제정이 기준점이 됐다. 협력사가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 윤리, 환경, 안전 등

20개 항목을 준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입찰부터 이행까지 계약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사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인권경영 교육’도 실시해 지난해 285개 협력사가 참여했다.

현장 취약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했다. 공사는 단일 작업내용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위험요인과 교육사항을 분석해 제공하는 ‘오늘의 위험’ 앱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요인을 익명 신고하면 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는 ‘세이프 리본’ 앱도 개발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업·안전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시행해 언어장벽으로 인한 사고지대를 줄이고 있다. 교육에는 최근 3년간 120명이 참여했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사칭범죄 예방을 위해 ‘사칭 보이콧피싱 예방센터’를 구축했

다. 협력사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전담직원이 인사기록을 대조해 30분 이내에 결과를 회신한다. 이를 통해 62건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밖에 KT, 대한노인회와 함께 IT 서포터스를 운영하며 농어촌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협력사 인권경영 역량 강화와 현장 근로자 보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며 공급망 전반의 인권경영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는 임직원을 넘어 1만2000여 협력사와 현장 근로자, 지역주민까지 인권경영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며 “공급망과 농어촌 현장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권경영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KAI, 협력사와 품질 경쟁력 강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협력사와 함께 항공기 생산 전반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며 품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KAI는 지난 2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2026년 KAI-협력사 품질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KAI는 이날 올해 품질 전략으로 ▲예방품질 강화 ▲전문인력 양성 ▲품질검사 제도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KAI



벤처협·INKE·서울과기대, 인재 양성 맞손

벤처기업협회와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2일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진행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서 (왼쪽 5번째부터) 김동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구기도 INKE 총회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고려아연, 울산 재난 대응에 2.3억 전달

온산제련소,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속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울산광역시에 ‘재난·재해 선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금’ 2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전달은 재난 피해 복구는 물론 재난 현장에 필요한 장비와 구호물품 등을 갖춰 재난·재해 발생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원금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5개 구·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재난 현장 기동형 지원 인프라 구축과 긴급구조 및 현장 대응에 필요한 물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사회공헌 활동의 영역을 ‘재난 발생 후 복구 지원’에서 ‘재난 발생 전 선제적 대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웅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경영지원 본부장은 “재난과 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지난해에도 산불·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특히 제련소가 위치한 울산 울주군의 단수 피해 주민들에게 생수 4만 병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는 데 힘을 보탰다. /양성운 기자 ysw@

롯데, 함께 걷고 달리며 장애 인식 개선

내달 9일 ‘슈퍼블루 마라톤’ 개최
10일까지 8000명 선착순 모집

롯데는 다음달 9일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제11회 슈퍼블루 마라톤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슈퍼블루 마라톤은 장애인의 희망과 자립을 상징하는 파란색 운동과 끈을 착용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고 달리는 행사다. 참가자는 오는 10일까지 8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슈퍼블루 걷기(1.6km)와 슈퍼블루 5km, 비장애인이 참여하는 5km와 10km 등 4개 코스로 운영된다. 장애인은 본인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롯데는 스포셜윌픽코리아와 함께 2013년부터 장애 관련 언어 사용과 인식 개선을 위한 ‘블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블루(BLUE)’는 ‘Beautiful Language Use will Echo’의 약자로 ‘아름다운

말은 올림이 됩니다’라는 의미다.

롯데는 캠페인의 취지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대해 2015년부터 매년 슈퍼블루 마라톤을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참가자는 약 8만명이다.

롯데 계열사들도 행사에 참여한다. 롯데월드 캐릭터 로티와 로리가 공연을 진행하고 롯데월드푸드와 롯데칠성음료는 간식과 음료를 지원한다. 롯데케미칼은 리사이클링 버스, 캐논코리아는 포토존 이벤트를 운영한다.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SOK 앙상블’ 공연도 진행된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이 함께 훈련하고 교류하는 ‘슈퍼블루 러닝 클래스’도 운영한다.

올해는 대회 개최일인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춰 ‘장애인에게 바른 말을 전해요’를 주요 메시지로 정했다. 행사를 통해 장애 관련 올바른 언어 표현과 장애 인식 개선의 의미를 알릴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LS전선, 동해 취업계층에 1억 지원

LS전선이 강원도 동해시 취업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상생 활동을 이어나간다. LS전선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동해시 취업계층과 지역 복지시설에 1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정학 동해시장(왼쪽), 최원용 LS전선 동해인사 노경충무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한수원, 성평등 문화 공로… 장관 표창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6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성평등진흥 유공을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그동안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과제 발굴·이행 ▲여성인재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적 진흥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한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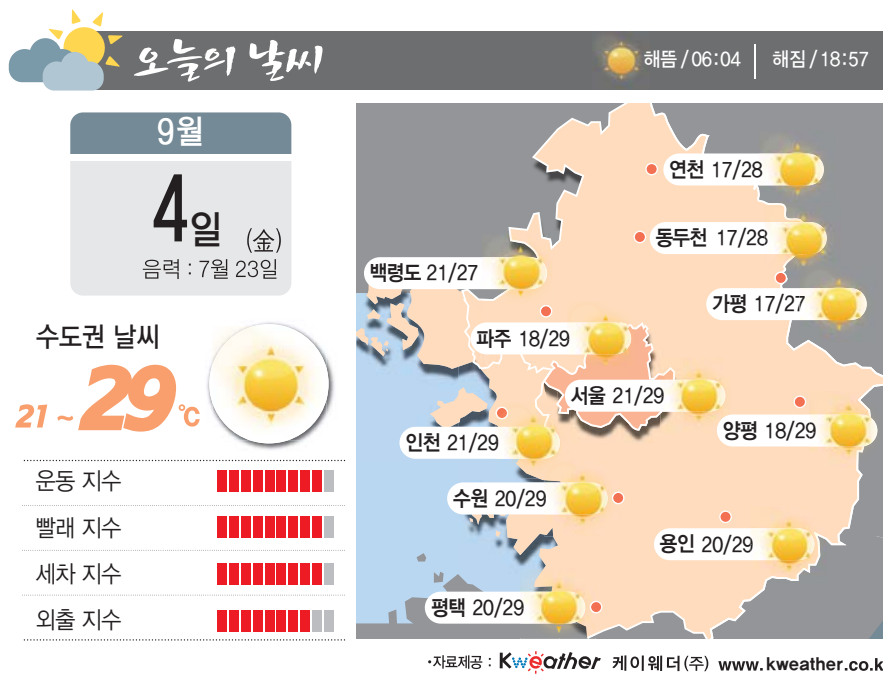
유태선씨, 화재 막아 ‘와우 히어로’ 선정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배송 중 차량 화재를 발견하고 초기 진화에 나선 쿠팡친구 유태선씨를 ‘와우 히어로’로 선정해 표창했다. 3일 밝혔다. 유헌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강변북로 하남 방면을 주행하던 중 앞가던 차량 엔진룸 부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쿠팡친구 유태선 씨(왼쪽), 홍용준 CLS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쿠팡

부음 ▲송만배(전 제천문화원장)씨 별세=2일 오후 7시, 발인 4일 오전 7시, 제천명지병원 장례식장 1특 분향실. 043-651-4440
▲윤성희씨 별세, 윤기영(인스포코리아 대

표)씨 부친상 = 건국대학교충주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4일 오전 9시

▲김은희씨 별세, 정현(가온전선 대표이사)씨 모친상 = 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5일 오전. 02-2258-5922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AI 시상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SW·AI 산업의 발전과 국가 AI 대전환(AX)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을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시상 개요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에 부응하여, 기술 혁신과 실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술·제품 및 서비스,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 기술 연구개발(R&D)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포상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시상 부문

시상 부문	시상 대상
제품·서비스 부문	우수 국산 SW·SaaS·AI 제품 및 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적용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인재 부문	기술개발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개인

AI 활용 우수사례란?

AI기술을 실제 업무 또는 산업 현장(공공·민간)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성과와 가치를 창출한 우수 사례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춘 사례를 말합니다.

- ✓ AI를 적용하여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생산성 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
- ✓ 국민·고객 편의 증진,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안전·환경 개선 등 정량·정성적 성과가 확인되는 사례
- ✓ 타 기관·기업으로의 확산·적용 가능성이 높고, 사회·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례
- ✓ AI 윤리·신뢰성·보안 등 책임 있는 AI 원칙을 준수한 사례



시상 내역

총 13점 내외
(예정)

구 분	시상 내역
부총리상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기관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언론·단체장상	메트로경제, 전자신문, 한국SW·ICT총연합회장



신청 안내

접수마감 : 2026. 9. 30.(수) 18: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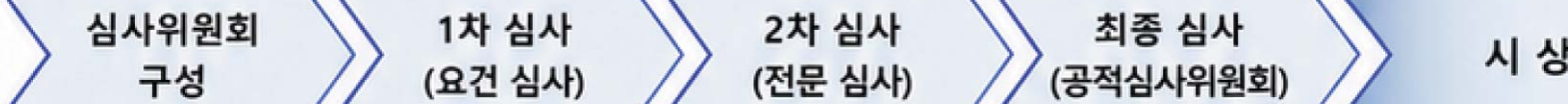
접수방법 : 한국SW·ICT총연합회 이메일 (awards@kswict.or.kr)

제출서류 : 부문별 포상 신청서, 공적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신청 자격,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관련 서식 등 세부사항은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안내서」 참조
안내서 및 신청 관련 서식 : 한국SW·ICT총연합회 홈페이지(www.kswict.or.kr)에서 확인·다운로드

시상 : 2026년 11월 예정

심사 절차



문의 사항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02-858-8510)

2027학년도 수시 논술전형 분석과 합격 전략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대입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은 교과 성적이나 학생부 종합전형만으로 희망 대학 진학이 어려운 수험생이 정시모집과 병행해 역전을 노리는 핵심 전형이다. 모집 인원이 적어 최초 경쟁률은 높지만, 정교한 전략을 수립하면 상위권 대학 진학의 강력한 통로가 된다. 2026년 이후 발표된 대학별 입시 가이드북과 연구소 분석 자료를 토대로 2027학년도 논술전형 합격 전략을 제시한다.

◆ 객관적 위치 파악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중요성

지원 첫 단계는 객관적 위치 파악이다.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로 정시 가능 라인을 점검하고, 수시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진학하기 어려운 상위 대학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이다. 수능 최저 기준은 실질경쟁률을 대폭 낮추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의약계열의 최초 경쟁률은 100 : 1에서 160 : 1을 넘나들지만 실질경쟁률은 20 : 1에서 40 : 1 수준으로 급감한다. 표면적 경쟁률에 지레 겁먹기보다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을 우선 판단해야 한다.

2027학년도 변동 사항도 점검해야 한다. 성균관대는 탐구를 두 과목 평균 반영으로 강

화했고, 숭실대는 두 개 영역 등급 합 6으로 완화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자연계열은 지정 과목 제한을 폐지해 확률과통계나 사회탐구 응시자의 지원 길을 열었다.

◆ 학생부 교과 성적의 실질 반영 비율 분석
내신 4등급 이하 수험생도 불이익을 두려 위할 필요가 없다. 대학들이 논술 반영 비율을 90%에서 100%까지 올리고 등급 간 점수차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단국대는 교과 10%를 반영하지만 1등급 10점과 6등급 9.5점 격차가 0.5점에 불과해 논술 한 문항으로 극복 가능하다. 실제 동국대 합격자 내신 평균은 4.03등급, 홍익대 서울캠퍼스는 4.06 등급이다.

◆ 주요 대학 논술전형 최초 및 실질 경쟁률 상세 현황

대학별 경쟁률 수치를 정밀 분석하면 지원 전략의 윤곽이 드러난다. 서강대 전체 평균은 최초 107.09 : 1에서 수능 최저 충족 후 실질 33.9 : 1로 하락했다, 수능 최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세 개 영역 등급 합 6이내이고 탐구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했다. 동국대 전체 평균은 최초 54.6 : 1에서 실질 36.0 : 1로 낮아졌다 기준은 두 개 영역 등급 합 5이내였다. 동국대 약학과는 최초 109.3 : 1에서 실질 45.4 : 1로 감소했다. 최저는 탐구 상위 한 과목을 포함한 세 개 영역 등급 합 4이내를 요구했다.

세종대 인문계열은 최초 67.6 : 1에서 실질 45.44 : 1로 떨어지고 수능 최저는 두 개 합

오 이내였다, 자연계열은 최초 27.0 : 1에서 8.44 : 1로 하락했다. 미적분이나 기하 및 과탐을 포함한 두 개 합 5이내를 적용했다. 숙명여대 인문계열은 최초 49.9 : 1에서 실질 12. : 1로 낮아지고 두 개 합 5이내를 충족해야 했다. 숭실대 경영학부는 최초 30.8 : 1에서 실질 6.8 : 1로 대폭 감소했으며 기준은 두 개 합 5이내였다.

◆ 계열별 맞춤 전략과 고사 일정 활용법

인문계열은 영어 지문에 강하면 이화여대나 한국외대, 수리적 감각이 있으면 상경계열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성균관대는 수리형 논술을 신설해 언어형과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중심이며 연세대는 과학 통합문항을 추가했다. 경희대, 아주대, 경북대는 의약계열에 과학논술을 병행한다. 중앙대는 재학생 전용 창의형 전형을 신설해 확률과통계를 제외했다. 약술형 논술은 동덕여대가 신규 도입했으며, 국민대와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미적분을 포함하므로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수능 전 고사를 치르는 서울시립대와 홍익대 등은 정시 가능성이 낮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기회가 된다. 수능 후 고사는 11월 셋째 주와 넷째 주말에 집중돼 지원자가 분산된다. 부산대는 의대와 약대 일반전형 및 LG전자 계약학과를 신설했고 가천대도 한의대와 약대 논술을 도입했다.

합격을 위해 대학별 입결 데이터 분석은 필수이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구사일생 홈플러스,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



기 지 수 첩
김 서 현
(유통&라이프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홈플러스가 마침내 파산의 벼랑 끝에서 돌아섰다. 청산보다 존속이 채권자들에게 1조 원 가까이 더이득이라는 선택이 통했고, 일지리와 지역 상권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얹히며 극적인 기회를 얻었다. 회생 신청 후 1년 6개월 만에 받아 든 값진 회생 티켓이지만,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 홈플러스가 마주한 현실은 '구사일생'의 안도감보다 훨씬 냉혹한 생존 경쟁의 출발선이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의 밑그림은 위태로울 정도로 뻣뻣하다. 인가 열흘 안에 메리츠금융에 수천억 원대 담보 채권을 갚아야 하고, 2028년까지 자가 점포 19곳을 팔아 1조 4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매각 대상 점포의 절반 이상이 비수도권에 쏠려 있다. 쫓겨 얼어붙은 지방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계획대로 제값에 점포가 팔리지 않는다면, 유동성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결국 해답은 '장사'에 있다. 다행히 시장의 신호는 나쁘지 않다. 최근 '홈플러스 is Back' 행사를 거치며 재개장 닷새 만에 437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8월 한 달간 1164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상품 대금 선지급이라는 가혹한 제약 속에서도 고객들은 다시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일시적인 '응원 소비'와 오픈 특수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흑자를 장담할 수 없다. 적자 점포를 채내고 몸집을 67개 핵심 점포로 줄인 만큼, 홈플러스라는 이름의 외연은 좁아졌다. 이커머스와의 출혈 경쟁 속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살아남으려면 신선식품의 압도적 품질과 독보적인 PB 상품처럼 소비자가 굳이 발걸음을 옮길 확실한 '이유'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노동계와 협력업체, 입점 소상공인들은 일 자리를 지키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며 회생에 힘을 실었다. 이제 공은 홈플러스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넘어갔다. 뼈를 깎는 비용 절감을 넘어 본업의 유통 경쟁력을 회복하고 채권 변제를 완수하는 책임 있는 경영을 보여줘야 한다.

/seo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4일 (음 7월 2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새로운 마음 가짐이 필요합니다. 60년생 주변 사람들과 다투지 마세요. 72년생 인간관계가 순조롭고 재물운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84년생 명색한 자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49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61년생 비밀 누설로 인해 고생 합니다. 73년생 노력을 안해도 복이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85년생 운기가 양호한 날입니다.



50년생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62년생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74년생 더 넓은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 보도록 하세요. 86년생 대성과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51년생 상상이외의 지출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63년생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75년생 너무 지쳐 있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세요. 87년생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52년생 상당히 기분이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64년생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만들 수 있는 날입니다. 76년생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88년생 어떤 일이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53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65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77년생 걱정할 만큼의 나쁜 병은 들지 않습니다. 89년생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취직하게 됩니다.



54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66년생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하니 심기가 불편합니다. 78년생 거듭 실패가 계속됩니다. 90년생 유명한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55년생 좋은 운은 늘 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잡으세요. 67년생 개업이나 전업은 흉합니다. 79년생 괴이한 곳에 가지마세요. 91년생 남쪽에서 온 사람과는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56년생 인정으로 인해 해를 당하리니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68년생 원대한 소원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80년생 길가에 위험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92년생 모든 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합니다.



57년생 신념을 가지고 매사를 이끌어 나가세요. 69년생 소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하세요. 81년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93년생 소개를 받아 취직을 하게 됩니다.



58년생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70년생 서쪽에 있는 사람만 가까이하지 마세요. 82년생 어려울 때일수록 불의를 멀리하도록 하세요. 94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방합니다.



59년생 여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1년생 부지런히 뛰어 다녀야 합니다. 83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95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하세요.



김상회의四季 검은 과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거액의 보상금을 노린 결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내용인즉슨, 입대를 앞둔 군인과 위장 결혼을 한 뒤 남편이 전사할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을 노리는 수법이다. 현재 러시아는 군인 전사자가 날로 속출하고 있고, 그래서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용병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자국 군인이 전사하면 직계가족은 최소 약 8,840만 원의 일시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한 병원 간호사가 부상병 5명과 아들이 숨지기 전에 차례로 결혼해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해고되기도 했다. 이렇게 곧 전쟁터로 불려 나가거나 부상을 당한 상태의 군인들과 결혼을 하고서는 혹 전사하거나 죽음을 맞을 경우 그 보상금을 챙기고자 결혼을 하는 여자들을 일러 '검은 과부'라고 칭한 것이다.

이는 분명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이렇게 돈만 추구하는 추한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검은 과부(Black Widows)의 유래는 원래 2000년대 초 러시아에서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격렬하게 대항한 체첸 여성 테러범들이 그 효시라고 한다. 이때 가까이 검은 과부라는 명칭으로 훈련된 여성들은 남편 등 가까운 가족이 러시아군에게 잃거나, 러시아군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게 된 여성들이 주였다고 하며 스스로를 사히디(순교자)라고 부르며 체첸 반군과 함께 인질극 또는 자살폭탄테러 등을 자행하였다 하니, 돈에 대한 저열한 욕심으로 군인들과 위장 결혼을 하는 현재의 러시아가 검은 과부 족속과는 결을 달리한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남자는 고살(狐殺), 여자는 과살(寡殺)이 있으면 부부 해로 운이 약하다. 특히 인과법을 중시하는 불교적 관점에서는 씁쓸한 내용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88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9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배티그가 만든 샤도네이… 칠레 트라이젠의 발견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40

이제 칠레 와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 가성비 좋은 칠레 와인, 믿고 마신다는 칠레 카베르네 소비뇽, 혹은 세로나 돈멜초처럼 칠레 프리미엄 와인. 오정도 반응을 넘어서야 할 단 예가다. 우리가 부르고뉴 와인이라면 “오, 주브레 샹베르타이네?” 혹은 화이트 와인이라면 “역시 샤블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특정 지역이, 특정 포도밭이 그 와인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칠레 3.0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글로벌 와인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은 게 칠레 1.0 버전, 프랑스 최고 와인과의 겨를 만한 프리미엄 와인의 탄생이 칠레 2.0 버전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칠레 트라이젠의 테루아를 전면에 들고 나온 부티크 와이너리, 배티그(Baettig)다.

칠레 배티그의 공동설립자인 카를로스 데 카를로스스는 지난 2일 한 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천천히 익은 포도는 껍질 자체가 얇고 당도나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트라이젠만의 신선한 생동감과 미네랄을 가지게 된



(왼쪽부터)배티그 비노 비네도 샤르도네, 배티그 셀렉시옹 파셀라 샤르도네, 배티그 비노 비네도 피노누아, 배티그 비노 비네도 카베르네 소비뇽, 배티그 셀렉시옹 파셀라 카베르네 소비뇽. /이영FBC



칠레 배티그 공동 설립자 카를로스 데 카를로스

다”며 “부르고뉴스러운 칠레 와인이 아니라 누구나 트라이젠 샤도네이, 트라이젠 피노누아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배티그는 전 에라주리즈 수석 와인메이커인 프란치스코 배티그와 전 에라주리즈 커머셜 디렉터인 카를로스스가 손을 잡고 세운 와이너리다. 그들만의 와이너리를 만들자며 2010년에 시작한 프로젝트가 2013년 칠레 최남단 말레코 밸리에서 트라이젠 지역을 발견하며 본격화했다.

와인 애호가라면 이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일단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할 터. 프란

치스코로 말할 것 같으면 칠레 와인 사상 처음으로 세계적인 와인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으로부터 100점을 받은 비네도 차드 워 2014’를 만든 와인 메이커다.

무게감 있는 묵직한 와인을 만들던 그가 선택한 품종은 다름 아닌 샤르도네와 피노누아다. 칠레 와인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기에 이전과는 좀 다른 와인을 만들고자 했다.

카를로스스는 “트라이젠은 기본적으로 화산토양이지만 배티그 포도밭은 가장 위로 점토부터 아래로 내려갈 수록 자갈과 암석까지 다층적”이라며 “모든 와인은 손으로 수확하고, 지역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야생 효모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와인 포트폴리오는 부르고뉴 방식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다. 마을 단위 와인인 빌라주, 1급 밭에서 만든 프리미에 크뤼, 특급밭인 그랑 크뤼가 있는 것처럼 배티그는 어떤 품종이든 빌라주에 해당하는 ‘비노 비네도’, 프리미에 크뤼인 ‘셀렉시옹 파셀라’로 나뉜다.

배티그 비노 비네도 샤르도네 2023’은 보통 칠레 샤도네이와 같은 열대과일향이 아니라 감귤류다. 테루아의 영향도 있지만 와인 메이커도 오크 사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했다. 꽃향도 어우러지는 가운데 과일 풍미에 생동감 있는 산도가 길게 이어진다.

배티그 셀렉시옹 파셀라 샤르도네

2023’은 비노 비네도 샤르도네의 맛에 서늘한 바람과 돌이 한결씩 얹혀졌다고 상상하면 된다. 농축미가 좋아 초반엔 향도 맛도 소극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집중력 있는 산도에 미네랄감, 복합미가 진가를 보여준다. 작년에는 칠레 와인 톱 100 가운데 6위에 오르기도 했다.

트라이젠 테루아에서 샤도네이가 처음부터 실력을 발휘했던 우등생이라면 피노누아는 대기만성형이다. 카를로스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트라이젠에서 “트라이 에게인(Try Again·반복적으로 다시 도전)”했다.

‘배티그 비노 비네도 피노누아’는 부르고뉴 피노누아 클론을 트라이젠에 심어 만들었다. 2023 빈티지는 따뜻했던 해답게 잘익은 붉은 과실향과 섬세한 꽃향, 낙엽 뉘앙스까지 잘 표현됐다.

와인병 라벨의 문법도 부르고뉴를 따랐다. 보통 칠레 와인이 와이너리나 브랜드명을 크게 내세운 것과 달리 트라이젠이라는 세부 지역명을 가장 잘 보이게 했다.

사실 배티그의 지금보다 기대되는 것은 앞으로다. 몇 세대를 걸쳐 내려오는 와인 업계 관점에서 보면 아직 유년기를 막 지난데다 드디어 고르고 고른 싱글 빈야드 와인, 부르고뉴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랑 크뤼급 와인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CGV “관객이 원하는 영화 상영합니다” 메가박스, 흥행작 ‘돌비 사운드’로 본다

온디맨드 프로그램 ‘COD-7’선택 관객 투표·예매수요 기반 영화 선정

관객이 직접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고, 실제 예매 수요에 따라 상영 여부가 결정되는 새로운 극장 프로그램이 나온다.

CGV는 관객 투표와 예매 수요를 기반으로 상영작을 선정하는 고객 참여형 온디맨드(On Demand) 프로그램 ‘COD-7(씨오디 세븐)’을 이달부터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COD-7’은 매월 특정 테마에 맞춰 7편의 후보작을 공개한 뒤 관객 투표로 상영작 1편을 선정하고, 이후 예매 수요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제 극장 상영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관객의 선택뿐 아니라 실제 관람 의향까지 반영해 극장 상영작을 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첫 프로그램의 테마는 ‘그 영화 보고 싶었는데’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봉한 작품 가운데 관객 만족도가 높았던 영화들을 중심으로 후보를 구성했다.

9월 후보작에는 ‘시라트’, ‘센티멘탈 밸류’, ‘햄릿’, ‘삼자 속의 양’, ‘마티 슈프림’, ‘어떻게 해야 했을까?’, ‘너바나 더 밴드: 전설적 밴드 ‘너바나’와는 별 관련 없는 ‘너바나 더 밴드’의 콤비 맷과 제이. 어느 날 공연을 위해 타임머신을 만드는 황당한 작전을 세우고 처음 만났던 17년



CGV ‘COD-7(씨오디 세븐)’론칭 /CGV

전으로 돌…’ 등 7편이 이름을 올렸다.

관객 투표는 오는 7일까지 CGV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최다 득표작은 7일 오후 공개되며, 이후 해당 작품의 ‘COD-7’ 예매가 시작된다.

상영 후보 극장은 CGV용산아이파크몰을 비롯해 영등포타임스퀘어, 왕십리, 인천, 오리, 광주상무, 대전, 대구, 서면, 울산삼산 등 전국 10개 극장이다. 오는 15일 오후 7시 회차를 대상으로 예매를 진행하며, 각 극장의 목표 관객 수를 달성하면 해당 회차의 상영이 최종 확정된다.

CGV는 ‘COD-7’을 통해 관객의 선택과 수요를 극장 편성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디세이·어벤져스:엔드게임 재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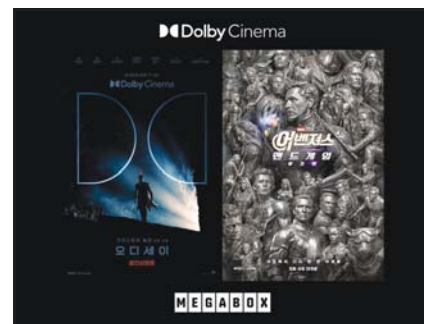
메가박스가 9월 돌비 시네마 라인업으로 대형 흥행작을 다시 선보인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와 마블 대표작 ‘어벤져스: 엔드게임 앙코르’를 돌비의 영상·음향 기술로 만나볼 수 있다.

‘오디세이’는 9월에도 돌비 시네마에서 연장 상영된다. 지난 8월 5일 개봉한 이 작품은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가 전쟁 이후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 10년에 걸쳐 겪는 여정을 그린 대서사극이다. 신화 속 미지의 세계를 배경

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풍경과 대규모 액션 장면이 주요 관람 포인트다.

23일부터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앙코르’가 재개봉한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후 타노스와 맞서는 어벤져스의 최후의 전투를 그린 작품으로, ‘인피니티 사가’의 대미를 장식한 작품이다. 이번 재개봉에서는 히어로들이 총집결하는 주요 장면을 극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두 작품은 돌비의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과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를 적용한 돌비 시네마에서 상영된다. 돌비 비전은 화면의 색감과 명암, 디



오디세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포스터. /메가박스

테일을 표현하고 돌비 애트모스는 사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듯한 공간감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메가박스는 국내 8개 돌비 시네마와 6개 ‘돌비 비전+애트모스’ 특별관을 운영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쇼박스, 숏폼 시장 도전… 올해 20편 선보

숏폼 전문 레이블 ‘쇼바이트’ 신설 로맨스·액션·사극 등 다양한 장르

쇼박스가 숏폼 드라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다. 쇼박스는 숏폼 드라마 전문 레이블 ‘쇼바이트(SHOWBITE)’를 새롭게 선보이고, 오는 9월부터 작품 5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약 20편의 숏폼 드라마를 선보이며 글로벌 콘텐츠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쇼바이트의 첫 작품은 오는 9월 11일

공개되는 ‘Taste of You’(감독 윤형식)다. 글로벌 숏폼 드라마 플랫폼 ‘쇼타임(Shorttime)’과 ‘비글루(Vigloo)’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와 만난다.

‘Taste of You’는 세계적인 식품 그룹의 차남 ‘빅터’와 절대미각을 지닌 라이벌 ‘마이크’가 요리 경연에서 한 팀을 이루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경쟁자로 만나 치열하게 부딪히던 두 사람이 점차 서로에게 빠져드는 과정을 그린다.

액션과 스릴러를 결합한 작품도 라인업에 포함됐다. ‘사신: 아수라의 귀환’은 여동생의 실종을 계기로 거대한 세력에 맞서게 된 전직 비밀 요원 ‘아수라’의 복수를 그린다.

사극 장르에서는 ‘조선슬화집’(감독 박진영)이 공개된다. 조선 시대 상류층의 은밀한 모임을 배경으로 권력과 배신, 치명적인 유혹을 풀어낸 작품으로, 이태성·류효영·고윤·정주연 등이 출연한다.

쇼박스는 쇼바이트를 통해 로맨스와 액션, 스릴러, 사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넓히는 동시에 숏폼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망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신원선 기자



▲WSJ “美, 이란전 파병 내년까지 연장…지상군 투입 재검토”

▲美 호위로 유조선 40척 호르무즈 통과…이란전 후 최대

/사진 뉴시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요원들, 도심서 총격전… 2명 중상

▲NHK “日 다카이치 총리 이르면 이달 16일 개각… 관방·자민 간사장 등 유임”

▲네팔, 발전소 터널속 ‘생존 가능성 수십명’ 구조 집중

▲대만 노동장관, 내달 中난징 APEC 회의 참석 ‘이례적’



백종원 대표
“지역에 맞는
성공모델 만들어야”
L1



Life

투썸
미국 본토 시장
공략 나선다
L2



집은 녹음 속 펼쳐진 ‘작은 우주’... 일상에 상상력을 심다

아파트의 미학(美學)

평택 고덕 예미지

고덕국제신도시 들어선 431가구 단지
삼성 평택캠퍼스, 대형 유통시설 인접

소나무·전나무 등 녹음으로 꾸민 조경
중앙 잔디마당에 펼쳐진 ‘작은 우주’
정원 전체, 태양계 한 장면으로 꾸며

바위와 식물 층층이 쌓여진 석가산
단지 곳곳 실내외 휴게공간 배치해
놀이터 테마로 이어진 우주 세계관
수경시설 갖춘 어린이 물 놀이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예미지 단지 내 중앙 잔디마당. 태양계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성채리 기자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평택 고덕 예미지’. 수도권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이나 SRT·1호선이 지나는 평택지제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단지에 닿는다. 새 아파트와 상가, 공원이 이어지며 신도시 특유의 정돈된 풍경이 펼쳐진다.

금성백조가 공급한 평택 고덕 예미지는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48블록에 들어섰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3층, 5개동, 총 431가구 규모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된 선시공, 후반양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단지는 직주근접성과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입지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깝고 고덕연구개발(R&D)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 부지도 인접해 있다. 홈플러스 송탄점과 코스트코 평택점 등 대형 유통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평택시청·시의회 신청사는 2028년 하반기 준

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교통망으로는 수도권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SRT·1호선이 지나는 평택지제역이 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올해 말 준공·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차량으로 고덕IC에 진입하면 수도권과 충청권 등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자녀 교육에도 최적화됐다. 고덕학박초등학교와 해장초등학교·해장중학교, 학원가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평택시는 올해 1월 미국 사립학교인 에니라이트스쿨과 국제학교 설립·운영 본협약을 체결했다. 특목고 예정 부지를 포함한 에듀타운 조성도 추진 중이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짙은 녹음이 눈에 들어왔다. 비가 그친 직후라 잎과 잔디는 한층 선명한 초록빛을 띠었다. 벽돌색 산책로 양옆으로 소나무와 전나무를 비롯한

키 큰 수목이 이어졌다. 나뭇가지가 산책로 위로 뻗은 구간에서는 잠시 고요한 숲속에 들어온 듯했다.

넓은 잔디 공간도 단지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커뮤니티시설 뒤편에는 나무 벤치와 가볍게 몸을 풀 수 있는 운동 공간이 마련됐다.

평택 고덕 예미지 단지의 메인 조경은 중앙광장과 잔디마당에 펼쳐진 ‘작은 우주’다. 잔디밭 중앙에는 태양을 형상화한 붉은 조형물이 솟대처럼 서 있고, 주변에는 목성과 금성, 지구 등 행성들을 배치했다. 크기와 색깔이 서로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단순히 작품 한 점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원 전체를 태양계의 한 장면으로 꾸몄다. 입주민은 단지를 걷다가 초록빛 잔디 위에 떠 있는 듯한 행성들을 여러 방향에서 마주하게 된다. 익숙한 아파트 정원에 낯선 우주 이미지를 끌어들이며 색다른 볼거리를 만들었다.

행성 조형물 옆에는 크고 작은 바위를 층층이 쌓은 석가산이 자리했다. 봉우리처럼 솟은 바위 사이사이에 나무를 심고, 아래에는 둥근 자갈과 넓적한 돌을 깔아 계곡 바닥처럼 조성했다. 알록달록한 행성 조형물이 이색적인 분위기를 뿜다면 석가산은 거친 바위 질감과 녹음으로 입주민의 일상에 자연의 풍경을 들여놓았다.

잔디밭 한쪽에는 김성용 작가의 작품 ‘마음의 소리’가 보인다. 선명한 주황색의 두 형상이 서로를 향해 맞닿은 모습이다. 나선형으로 확장되는 표면은 말과 생각이 파동처럼 퍼져 나가는 모습을, 중심에서 바깥으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층은 대화가 쌓이고 해석되는 과정

을 형상화했다.

단지 곳곳에는 여러 형태의 휴게공간을 배치했다. 검은 프레임과 긴 나무 상판으로 구성된 테이블이 있는가 하면, 흰색 기둥과 투명한 유리 지붕 아래 붉은색 철제 탁자와 의자를 놓은 공간도 있다. 지붕과 기둥에는 예미지의 꽃 모양 브랜드 로고를 더했다. 석가산과 행성 조형물을 바라볼 수 있는 통유리 실내 공간도 마련됐다. 휴게공간마다 색과 가구 형태를 달리해 단조로움을 떨쳤다.

중앙광장에서 시작된 세계관은 어린이 놀이터에서도 이어졌다. 작은 놀이터는 ‘평택에 떨어진 거대한 혜성’을 주제로 만들어졌다. 오각형 구조물을 중심으로 주황색 꼬리가 길게 뻗은 형태를 더해 땅에 떨어진 혜성을 표현했다. 보라색과 청록색, 노란색 등 역동적인 색을 조합해 잔디마당의 행성과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었다.

수경시설을 갖춘 물놀이터에서는 우주 콘셉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대형 놀이시설에는 ‘게이트 오브 더 멀티버스(Gate of the Multiverse)’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미끄럼틀과 물놀이 시설이 거대한 우주선이나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처럼 보이도록 구성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예미지는 조경에 선명한 색채와 이색적인 콘셉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러한 요소를 짚은 회

색 건축물과 풍성한 식재가 반쳐주며 전체적인 균형을 이뤘다. 짙은 녹음 사이에 행성과 혜성, 꽃무늬를 흩어 놓은 풍경은 단지를 ‘자연 속 작은 우주’로 완성했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1 잔디마당에 조성된 석가산. 2 울창한 수목이 심겨진 산책로. 3 우주 배경으로 꾸민 물놀이터.

메트로 한줄뉴스



▲진우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연임 성공...“한국 불교 새 100년 열겠다”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있다...대법 “자막 제 공해야”
/사진 뉴스스

▲국립한글박물관, 충남지역 생활상 담긴 한글자료 공개
▲25억원에 팔린 유명국작, 북미 미술관 이사회가 소장

▲오타니 왼쪽 무릎 통증에 시즌 투수 복귀 불발 가능성
▲타이거 우즈, 차량 전복 사고로 5년 면허 정지 처분